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채 규 만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대학생활 적응

- 내현적, 외현적 자기에 성향의 매개효과 -

2013

성신여자 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정 은 지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대학생활 적응

- 내현적, 외현적 자기에 성향의 매개효과 -

채 규 만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1월

성신여자 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정 은 지

인 준 서

정은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내현적 자기애 및 외현적 자기애 성향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선행 연구들에서 자녀에 의해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와 그 영향 관계에서 남녀에 의한 차이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남녀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7개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자녀에 의해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 척도, 대학생활 적응 척도, 내현적 자기애 척도, 외현적 자기애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에 의해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 외현적 자기애, 대학생활 적응을 분석한 결과 남녀차이가 드러났다. 부모 모두 하위척도인 과잉기대에서는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의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지만, 밀착통제 영역에서는 여학생의 평균이 남학생의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내현자기애 척도 전체와 그 하위척도인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과 과민/취약성에서 모두 여학생의 평균이 남학생의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 외현적 자기애 척도의 하위 척도인 웅대성에서는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의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 척도 전체와 그 하위척도인 개인-정서적 적응에서도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의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둘째,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내현적 자기애, 외현적 자기애,

대학생활 적응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남녀별로 상이한 패턴이 나타났다. 우선,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 양육태도와 대학생활 적응에서 남학생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는 남녀 모두에서 대학생활 적응과 상관이 있었으나, 내현적 자기애는 부적 상관을, 외현적 자기애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부모의 과보호와 내현적 자기애는 남녀 모두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외현적 자기애는 여학생의 경우에만 상관이 있었다. 과보호 하위 척도와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 및 대학생활 적응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에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하위 척도는 부모의 투사적 과보호 척도였다.

셋째, 상관관계 분석에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남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남학생의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내현적 자기애를 매개로 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어: 부모 과보호, 내현적 자기애, 외현적 자기애, 대학생활 적응**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가설	7
II. 이론적 배경	8
1.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8
1) 과보호적 양육태도의 개념과 한국적 과보호	8
2)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관련 선행연구	12
2.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17
1) 대학생활 적응의 개념	17
2)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21
3.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자기애,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24
1) 자기애의 개념	24
2) 내현적 자기애 및 외현적 자기애의 특성	30
3)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대학생활 적응과 내현적 및 외현적 자기 애의 관계	34
III. 연구방법	38
1. 연구대상	38

2. 측정도구	39
1) 과보호척도	39
2) 내현적 자기애 척도	40
3) 외현적 자기애 척도	41
4) 대학생활 적응 척도	43
3.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45
IV. 결과	46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성별 차이검증	46
2.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내현적 자기애, 외현적 자기애, 대학 생활 적응 간의 상관관계	49
3.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 치는 영향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 검증	54
V. 논의 및 제언	57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부록

표 목 차

<표 1> Akhtar와 Thomson(1982)의 자기애 하위유형 구분	31
<표 2>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	38
<표 3> 과보호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과 신뢰도 계수	40
<표 4>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과 신뢰도 계수	41
<표 5> 외현적 자기애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과 신뢰도 계수	42
<표 6> 대학생활 적응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과 신뢰도 계수	44
<표 7>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성별 차이검증	48
<표 8> 남학생 집단의 부모 과보호와 내현적 자기애, 외현적 자기애,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52
<표 9> 여학생 집단의 부모 과보호와 내현적 자기애, 외현적 자기 애,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53
<표 10> 부모 과보호가 남자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서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를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56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가족주의 문화가 발달된 우리나라에서는 자녀를 독립된 개체가 아닌 부모의 부분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산업화의 영향으로 핵가족화가 가속화 되면서 가족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 유대관계는 더욱 긴밀해졌으며, 부모와 자녀간의 과도한 ‘동일체감’은 우리나라 부모자녀 관계의 특징적인 모습의 하나로 나타나게 되었다(방희정, 2000; 장성숙, 2007; 최상진·김혜숙·유승엽, 1994).

50년대에 이미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연구한 Schaefer(1959)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거부’와 ‘자율-통제’의 두 가지 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축에 의해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자율’, ‘애정-통제’, ‘거부-자율’, ‘거부-통제’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각각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자녀의 성격발달과 사회적응 양상에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애정-자율’적인 양육태도가 부모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자율성을 주되 책임을 지게하며, 문제가 있을 때는 함께 상의하는 등 자녀가 하나의 자율적인 개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양육태도인데 반해 ‘애정-통제’적인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주기는 하지만, 자녀의 모든 것을 부모 마음대로 통제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며, ‘거부-자율’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관심이나 애정을 가지지도 않으면서 자녀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규율이나 지도를 하지도 않는 양육태도 이다. 이런 부모 밑

에서 자라난 자녀들 중 상당수는 나중에 반사회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거부-통제’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애정표현을 하지 않고 수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행동을 규제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추후에 분노감을 많이 갖게 된다고 한다(이원영, 1998, 재인용).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양육태도를 조사한 연구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주로 ‘애정-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원영, 1983; 이병래, 1991; 박은정, 1996). 즉,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많은 애정을 쏟지만, 한편으로는 자녀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자 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녀가 행동하기를 바라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자녀들에게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우리나라 부모들의 ‘애정-통제’적인 양육방식에 의해 자녀들은 부모에게 보은의식, 감사함, 미안함, 측은함 등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희생, 헌신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고 자신을 통제하려는 부모의 태도 때문에 반항적이 되거나 부모에게 숨겨진 분노를 품게 되기도 한다(최상진, 1994).

정은영(2008)은 이렇게 부모가 자녀와 밀착되어 있으면서 과도하게 기대하고, 간섭하며 통제하고 나이에 맞지 않게 보호하고자 하는 한국 부모들의 양육태도를 ‘한국적 과보호’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척도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과보호’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

지 부정적인 결과들을 가져오지만, 자녀 개인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을 가져온다. 부모의 ‘과보호’ 속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개인 내적으로 낮은 자존감, 우울, 불안, 분노 및 반사회적 행동 등의 경향을 보이며(Parker, 1979; Parker, 1981; Whisman & Kwon, 1992; Overbeek, Have, Volleberge, & Graaf, 2007; 신민진, 2010; 심종욱, 2011; 이민경, 2011; 이숙, 2006; 장주연, 2009; 정채숙, 2001), 사회적으로도 대인관계 문제, 사회 부적응, 진로불안, 낮은 사회적 유능감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김미경, 2008; 김선희, 2011; 김영희, 2011; 김진희, 2008; 박나래, 2012; 장혜정, 2010; 전인옥, 2012).

이렇게 부모의 과보호 속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서 여러 적응상의 문제들을 겪게 된다. Erikson(1968)은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중 청년 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시기가 이전 시기와는 다른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라고 언급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중고등학교 시기까지 대학입시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가 대학 입학 후에는 갑자기 자율성과 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적응상의 어려움과 혼란을 느끼기 쉽다(김소라, 2003).

대학에 진학하게 된 학생들은 익숙했던 환경을 떠나 새로운 정체성을 규정하고 성립해야 한다.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점에서 새로운 사회적, 환경적인 상황에 적응해야 하며 대학 내에서의 학업, 대인관계, 정서적 문제 등이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내적, 외적 자원에 따라 적응정도에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대학생들의 적응에 관련된 연구들에 의하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4학년이 1학년보다 대학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신지영, 2000), 부모가 생존해 있고 자녀와 동거하며, 가족 간 갈등이 적은 학생들의 적응도가 높았다. 또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정도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정은희, 1992).

새로운 상황에의 적응은 누구에게나 어렵지만, 부모의 과보호 속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개인 내적, 외적인 문제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활 적응이라는 상황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많은 한국의 가정들이 한 두 명의 자녀만을 낳아 소수의 자녀들에게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과대한 자기상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자녀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자기애적 성향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Masterson(1985)은 동양의 자녀중심적인 부모 양육태도에 의한 과보호가 자녀의 자기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 되고 있다(강선모, 2012). 이러한 자기애적 성향은 자기(self)에게로 모든 심리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것으로서, 자기에 대한 웅대한 환상과 과시욕, 타인을 무시하고 착취하는 외현적인 특성과 불안하고 소심하며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내현적 특성을 가지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두 가지 성향 모두 사회적인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강선희, 2002).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유교적 가족구조와 부모자녀 ‘동일체감’에 의해 형성된 ‘한국적 과보호’와 그로 인한 자녀들의 개인내적, 외적인 적응상의 문제들은 사회가 점차 부모-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 형태로 분리되고 타인과

의 연결망이 약화되면서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날로 과열되는 경쟁과 승자 독식의 사회체제는 ‘내 자식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전 사회적인 이기주의를 만들면서 부모의 과보호와 자녀들의 자기애적인 문제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은 성인으로서 성장해야 하는 대학생 시기에 적절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 채 부모에게 의지하거나 사회에서 고립되고 적응상의 문제를 겪는 등 부정적인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대학생 시기 이후 성인의 적응은 그들이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능하고, 가정을 꾸려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는 점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들 대학생들의 적응과 정체성의 확립 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확장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 시기까지 입시에 의해 모든 개인적인 성장을 미뤄둔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대학생 시절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고,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대학생의 적응은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모의 양육태도와 적응에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에 국한되었거나, 양육태도 전반에 관련된 연구들이 많았다(김미경, 2008; 김성희, 2011; 김진희, 2008; 박나래, 2012; 신민진, 2010; 심종옥, 2011; 이민경, 2011; 정채숙, 2001; 차영희, 2007).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양육태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과보호’와 관련한 연구가 많지 않고, 그것이 성인 대학생 자녀의 적응에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논문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강선모, 2012; 김지연, 2010, 김지연, 2011; 김소라, 2003).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에 의해 생겨난 자기애적인 경향이 어떻게 적응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제 막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과보호적인 양육태도가 성장기 단계에 있는 아동, 청소년기를 넘어 청년과 성인의 중간에 있는 대학생들의 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 과정에서 자녀들의 '자기애적인 경향'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연구가설

이상과 같이 살펴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대학생 자녀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들에서 남, 여 별로 부와 모의 과보호를 지각하는 정도와 양상에서 차이점이 나타난 바(김혜영, 2000; 이숙, 2006; 정채숙, 2002; 노경선 외, 2003), 본 연구에서는 남녀별로 집단을 나누어 과보호가 대학생활 적응, 내현적 및 외현적 자기애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설정된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내현적 자기애 또는 외현적 자기애, 대학생활 적응 간에 서로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을 것이다.

가설 2.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내현적 또는 외현적 자기애를 매개로 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대학생 자녀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 성향이 매개하는 경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과보호적 양육태도, 대학생활 적응, 그리고 자기애적 성향의 개념 및 특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과 이론들을 살펴보고 이 변인들의 관련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1) 과보호적 양육태도의 개념과 한국적 과보호

부모의 양육태도는 Bowlby가 애착이론을 발표한 이래 자녀의 적응과 특성, 정신병리 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과보호는 Levy(1931)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에서 처음 언급한 이래 부모 양육태도의 중요한 한 측면으로서 다루어져 왔다. Levy(1931)는 과보호를 ‘자녀의 연령이나 발달정도에 맞지 않게 부모가 지나친 보호, 통제, 독립적 행동 저해, 과도한 접촉과 유아 취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김영희, 2011, 재인용). Levy이후 현대 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설명하는 데 과보호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여 연구한 Symonds(1949)는 과보호를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염려와 불안이 지나쳐 필요 이상으로 간섭하고 도와주며 자녀의 일상생활, 건강, 교우관계, 진

로 등에 대해 부담감을 주고 지나치게 보호하는 형태'라고 설명하였다(김지연, 2010).

Parker(1983)는 과보호에 대하여 '자녀가 혐오스러운 경험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통제하고 관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는 지나친 통제, 간섭, 의존성 조장,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의 보호 등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김성희, 2011). 그는 Parental Bonding Instrument(PBI)를 통해 돌봄과 과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즉, 돌봄적 측면에는 부모의 애정, 정서적 따뜻함, 공감 및 친밀감등이 포함되며, 과보호적 측면에는 부모의 통제, 과보호, 침입, 과도한 접촉, 아기취급, 독립적 행동의 방해 등이 포함되었다(Parker, 1979; 장혜정, 2010 재인용). Doh 와 Falbo(1999)는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아기취급 행동과 보호적 행동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는데, 어머니의 아기취급 행동은 아이를 도와주는 행동을 연령에 맞지 않게 많이 하여 아동의 독립성을 방해하는 행동특성을, 어머니의 보호적 행동은 아이가 처한 주변 환경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며 우려하는 행동특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차영희, 2007).

또한 Adler(1973)는 과보호하는 부모들의 모습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가 아동 주위를 돌면서 그들의 과제를 빼앗아 가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Wexberg(1974)는 과보호하는 부모는 '아이에게 애정을 소나기 같이 퍼붓고 아이에게 무언가 슬픔이 있게 되면 끊임없이 동정하며 아이의 눈만 봐도 그 모든 소원을 읽어내며, 아이에게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며 아이의 말을 잘 듣고, 아이들이 부모를 휘두르려는 목적을 가졌음이 분명함에도 그들의 기분과 뜻에 맞추어 준다'고 하였다(김영희, 2011). 이와 같이 과보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정의는 ‘부모가 과도하게 자녀를 보호하고 통제함으로써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적 과보호’에 대한 학문적 정의가 이루어 졌는데, 박아청(1998)은 과보호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언급하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과보호란 ‘수용적이면서도 간섭적이고, 관심이 지나친 것 같으면서도 무관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동시에 자식에게 부모 자신의 인생을 걸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녀의 인생을 무시해 버리는 부모중심 자녀관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하였다(박아청, 1998). 김지연(2010)은 서양의 과보호가 부모의 애정이나 돌봄과는 구분되는 양육태도로 주로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가리키는 용어인 것에 반해, 한국의 과보호는 부모-자녀간의 비정상적인 일체감과 공생관계에서 기인한 ‘애정적이며 통제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김지연, 2010).

부모 과보호의 원인으로는 아이는 무조건 사랑해 주어야 하고, 사랑은 허용과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기인한 것 일수도 있고, 외아들, 막내 등 아이의 요인 때문이거나 부모의 불행한 성장경험이나 부부 불화로 자식에게 집착하는 것 등 부모요인 일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핵가족화가 가속화 되면서 자녀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도 과보호의 중요한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홍강의, 2005). 또한 교육열이 과도하게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의 교육에 헌신하여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낸 어머니는 이른바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한’ 어머니로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결국 자녀의 성공이 가족의 성공으로 인식되는 한국

적인 분위기 속에서 부모들은 자녀의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관심과 애정을 쏟아 붓게 되며 이것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도 한국적 과보호를 강화시키는 한 가지 원인이다(장주연, 2009).

하지만, 부모의 과보호는 자녀에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Levy(1943)는 과보호 어머니가 아이를 위축시키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적 부적응자로 만든다고 하였고, Adler(1958)도 부모의 과보호는 자녀의 심리적 발달을 저해하며 신경증과 정신병리의 원인이라고 하였다(전인옥, 2012). 신민진(2010), 심종옥(2011)등의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의 과보호는 자녀의 낮은 자존감, 우울, 불안, 분노 및 반사회적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며(Parker, 1979; Parker, 1981; Whisman & Kwon, 1992; Overbeek, Have, Volleberge, & Graaf, 2007), 사회적으로도 대인관계 문제, 사회 부적응, 진로불안, 낮은 사회적 유능감 등에 영향을 미침이 밝혀졌다(김미경, 2008; 김선희, 2011; 김영희, 2011; 김진희, 2008; 박나래, 2012; 장혜정, 2010; 전인옥, 2012).

정은영(2008)은 한국적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한국적 과보호 척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는 연구에서 과보호란 자녀에 대해 갖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행동이나 사회적 활동에 필요 이상으로 통제하고 간섭하여 자녀의 자율성을 저해하며, 자녀의 성장단계에 맞지 않게 부모의 보호가 지나쳐 자녀가 할일을 대신 해 주는 태도를 핵심 요소로 하고 있다고 정의하였다.

그는 연구에서 부모자녀간의 과도한 공존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적

과보호'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제시하였는데, 부모의 과잉 교육열로 인한 지나친 기대를 나타내는 '과잉기대', 부모의 지나친 간섭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과잉간섭',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밀착하여 엄격한 통제와 관리를 하는 '밀착통제', 부모 자신의 불안이 자녀에게 투사되어 자녀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투사적 과보호', 자녀에 대한 과잉 애착으로 인해 지나친 접촉과 애기취급 하는 등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과잉 애정과 불안을 나타내는 '자녀불리불안'의 다섯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정은영, 2008).

이상과 같이 살펴 본 바에 따르면, 서양의 과보호 개념과는 다른 한국적인 과보호는 '과도한 부모-자녀 간 일체감에 의해 부모가 자녀의 연령에 맞지 않는 돌봄을 제공하고 지나치게 통제함으로서 자녀의 자율성 및 건강한 자아발달을 저해하는 양육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한국적 과보호의 특성이 '애정적이며 통제적'이라는 기존의 연구들의 입장에서 과보호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의 측면을 추가한 것이다.

2)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관련 선행연구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관련된 연구들은 과보호적 양육태도의 원인과 특징에 대해 다룬 연구들, 부모의 과보호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 연구들, 그리고 과보호가 성인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성차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의 원인과 특징에 대해 연구한 논문에서, 박아

청(1998)은 과보호 아동의 특징으로 ‘인내심이 없고, 화를 잘 내며, 자기중심적이고, 사람들의 주목을 얻으려고 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자극에 민감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과보호가 단순히 부모-자식 간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인 문제임을 강조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대책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원영(1998)도 연구 논문에서 한국의 어머니들은 주로 애정-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부모-자녀 간 밀착된 관계와 어머니의 ‘한’을 자식이 대신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한국 특유의 정서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 자녀를 기르는 것은 어머니의 과업이며, 자식의 성취는 어머니의 성취이자 나아가서 가문의 성취로 여기는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특히 어머니의 과보호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

부모의 과보호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한 논문들에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내현적, 외현적인 문제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드러났다. 부모의 과보호가 자녀의 내현적인 문제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에서, 신민진(2009)은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 냈는데, 과보호 받은 자녀는 스스로 자신을 취약하다고 믿게 됨으로서 의존심이 높아지고,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부정적인 상황이나 사건을 미리 두려워하게 되기 때문에 불안 수준이 높아진다고 설명하였다. 심종옥(2011)은 부모의 과보호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녀가 자신에 대해 제대로 탐색하지 못하고,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준비에서도 미흡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부모의 과보호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고(정채숙, 2001),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억제하고 통제하게 되면 자녀들이 외부

상황의 위험을 과도하게 인지하고, 처벌의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억제하게 되기 때문에 걱정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 드러났다(이민경, 2011). 김성희(2011)는 어머니가 과보호 한다고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유발된 정서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며, 이로 인해 또래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김영희(2011)와 장혜정(2010)은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과보호 양육태도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및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부모의 과보호는 또한 자녀의 외현적인 문제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장주연(2009)은 과보호 청소년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외부 세상에 대한 평가에서 논리적 오류를 일으켜 비합리적이고 부적응적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자녀의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김진희(2008)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과보호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공격성’이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 ‘신체증상’ ‘우울 및 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 ‘내현화 문제’가 높게 나왔고, 남학생의 경우 ‘외현화 문제’가 높게 나타났다. 전인옥(2012)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어머니의 과보호를 높게 지각할수록 외현적 문제행동이 증가하는데, 이는 자신의 정서를 더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성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박나래(2012)의 연구에서는 과보호 아동이 높은 사교육에 노출될 경우 외현화 문제가 증가하며, 이는 학업관련 과보호를 많이 받을수록 공격성이 높아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공격성, 사회

적 위축, 자기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보호를 많이 받은 아동일수록 공격성이 높고, 사회적으로 더 많이 위축되며, 자기유능감이 낮게 된다는 것이다(이숙, 2006).

부모의 과보호가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다. 몇몇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의 과보호는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김미경(2008)은 연구에서 부모의 과보호를 받은 자녀들이 또래관계에서 사교적이고 친사회적인 행동을 많이 함을 보여주었고, 김영희(2011)의 연구에서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부모-자녀 일체감에 의한 어머니의 과잉 애착이 어린 나이의 아동들에게는 오히려 적극적인 돌봄과 애정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영희(2007)는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유치원 적응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원유미, 2000; 최정미, 1999)와는 상반되는 것인데, 이 논문에서 대상으로 한 유아들이 초기유아기에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과잉양육행동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보호의 이러한 긍정적 영향은 어린 나이의 아동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박나래(2012)의 과보호와 사교육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과보호는 영유아의 발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청소년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연령에 따른 양육방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부모의 과보호 관련 논문들은 주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온 경향이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학생 및 성인자녀를 대상으

로 한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김지연(2010; 2011)과 강선모(2012)등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과보호는 성장기 청소년과 영유아를 넘어 이미 어느 정도 정체성이 확립된 성인기 대학생 자녀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강선모(2012)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과보호를 받고 자란 대학생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하지만, 취약성 때문에 성취를 이루지 못하게 되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과대한 자기를 개발하여 자기애적인 성향이 강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김지연(2010; 2011)은 부모의 과보호가 성인자녀의 대학생활 적응, 불안,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남여 성별에 따라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인식하고 그것에 의해 영향 받는 정도에서 차이가 난다는 연구들은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 김선희(2011)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과보호의 인식차이를 밝혀냈으며,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김혜영, 2000; 이숙, 2006; 정채숙, 2002; 노경선 외, 2003).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어머니의 과보호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을 심리적 통제나 간섭으로 지각하는 비율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과거부터 남아선호사상이 강했던 우리나라에서 부모들이 여아보다는 남아에게 사회적인 성취에 대한 기대가 높고, 그에 따라 아들을 더 과보호하는 사회적 경향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지연(2010)은 부모의 과보호가 자녀의 자아탄력성, 대학생활 적응, 불안,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성별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즉, 남학생의 경우 부모의 과보

호와 대학생활 적응 및 불안, 우울 등의 변인들이 상관성이 있었으나 여학생은 불안에서만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남녀에 따라 과보호의 지각 수준과 영향을 받는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할 때 남녀 성차에 따른 차이점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해 준다.

2.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1) 대학생활 적응의 개념

적응이란 인간의 생활에서 부과되는 다양한 요구와 압력을 관리하거나 대처하는 심리적 과정 또는 대처의 결과로 정의할 수 있다(송혜리, 2010, 재인용). Lazarus(1976)는 적응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설명 하면서 환경의 요구에 자신의 욕구나 행동양상을 순응시키는 수동적 측면과 자신의 욕구나 행동양상에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동적 측면으로 나누었다. 따라서 훌륭한 적응이란 환경과의 수동적인 관계 이상의 것을 의미하며 개인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역동적 관계라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요구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창조의 과정을 통해 환경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으로, 자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환경의 요구도 충족시켜주는 능력을 말한다(김소라, 2012, 재인용).

Allport(1961)는 적응이란 환경에 대한 자발적, 창조적 행동이고 그 필수 조건으로 행동의 결과가 개인에게 안정감을 주고 사회의 가치, 규범, 질서에

합치되는 상태라고 하였다. 적응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자기 자신을 손상함이 없이 현실적으로 융통성 있게 자기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사람이며, 적응 행위는 문제해결의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부적응은 개체가 가지고 있는 요구와 환경이 가지고 있는 요구가 충돌, 갈등함으로써 역학적 균형 상태를 이루지 못한 상태 또는 사회문화의 규범이나 질서와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이운조, 2002).

적응은 이렇게 한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맺는 관계이며, 이것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이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적응의 개념을 대학생활 적응에 적용시켜보면,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생들이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학업, 대인관계 및 정서적 측면에서 대학생활의 요구에 대처하는 적절한 반응을 말한다(신지영, 2000). 대학생활은 한 개인의 발달과정 상 변화와 적응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Erickson(1968)은 대학시절에 해당하는 청년기는 개인이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하면서 자유롭게 자신의 역할을 탐색하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이후 성인기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힘들다고 주장하였다(이수진, 2007).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에서 대학생활은 특히 개인의 적응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시기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시절 입시 위주의 학업풍토 속에서 유보해 왔던 자기정체성을 탐색하고 정체감 위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대학생 시기이기 때문이다. 대학생활은 고등학교 때의 타율적인 생활과는 달리 자율적이고 자기 의지적이며, 자기

통제적인 생활을 요구한다. 중·고등학교 때와는 다른 이러한 낮은 상황은 대학생들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적응전략, 대처 매커니즘을 개발하도록 압력을 주게 되는 것이다(김휘윤, 2012; 이관형, 2000에서 재인용).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의 진학 시 경험하게 되는 환경의 변화에는 중·고등학교의 입시위주의 타율적 교육환경에서 자율적인 교육환경으로의 변화, 성인으로서 가지게 되는 자율적인 의사결정권과 그에 대한 책임, 학업 성취와 진로에 대한 심리적 부담, 그리고 학과 및 동아리 활동, 사회경험을 통한 인간관계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김휘윤, 2012). 인간관계의 폭이 좁고 자기가 결정해야 할 일들이 비교적 작았던 고등학교 때와 비교했을 때 대학생이 감당해야 할 환경적인 과제가 훨씬 다양해 진 것이다.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개인적인 자원과 사회적인 자원들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적 자원은 긍정적인 자기지각, 자기효능감 및 귀인양식들을 말하며, 사회적 자원은 사회적 지지와 개인이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나 가족들의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인 측면에서의 지지가 포함된다(신지영, 2000). 이러한 개인적, 사회적 자원 이외에도 가족 형태와 가족관계, 부모와의 애착형태, 환경의 변화 정도도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들이다. 즉, 부모가 생존해 있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자녀들이 더 적응을 잘하며, 부모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고 부모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할수록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전환경과 대학입학 이후의 환경이 크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대학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바울, 2007).

하지만,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적응에 문제를 겪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들은 앞서 언급한 요인들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거기에 더해 심리적인 문제도 겪게 된다. 여기에는 성격장애, 섭식장애, 자살충동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Ricem 1992; 최바올, 2007재인용). 성공적인 적응은 성취감, Well-Being을 가져오지만 부적응은 스트레스와 패배감을 가져온다고 한다(Bragg, 1994; 최바올, 2007에서 재인용).

Baker와 Siryk(1984)은 대학생의 적응도를 측정해주는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SACQ)검사를 개발하였는데, 이들은 대학의 교육적·학업적 요구에 관한 학업적 적응, 대인관계와 사회적 요구와 관련된 사회적 적응, 심리적 혹은 신체적 불편감을 나타내는 개인-정서적 적응, 그리고 대학에 대한 유대 정도와 대학의 질에 대한 만족도와 학업적 목표에 대한 몰입 정도를 알아보는 대학 만족도의 4가지 범주를 대학생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첫 번째, 학업적 적응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학업적 요구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인지적인 학습능력을 넘어서 학업에 대한 동기, 요구에 부딪혔을 때의 행동, 학업 환경과 관련된 일반적인 만족감, 시간관리, 분명한 목적의식이 중요한 구성요인이다. 두 번째, 사회적 적응은 대학이라는 사회적 삶에 적응하는 정도,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나 부모와 같은 사회적 관계의 지원조직의 형성,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관리능력, 교수·교우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포함한다. 세 번째, 개인-정서적 적응은 대학에서 대학생들의 상호 관계성, 삶의 방향, 자기가치 등 개인의 인성형성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자기 존재의 본질, 위치, 역할 등 자기탐

색과정을 통한 정서적 적응을 의미한다. 네 번째, 대학만족도는 대학에 대한 애착 정도와 대학의 질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학업적 목표에 대한 몰입정도를 나타낸다(이윤조, 2002).

2)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대학생 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과보호는 아동, 청소년 자녀의 대인관계, 사회적응 뿐만 아니라 대학생 자녀의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며(김지연, 2010; 김지연, 2011; 박은미, 1999), 부모와의 관계가 자녀의 대학생활 적응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된 바 있다(박유화, 2001; 신지영, 2000; 조화진, 2005).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부모의 과보호에 의해 영향 받은 자녀들은 낮은 자존감, 불안, 우울, 대인관계 문제, 목표 불안정, 낮은 인내심으로 인한 성취의 부족 등의 다양한 문제들에 의해 영향 받으며 이러한 특성들은 자율성, 독립성이 요구되는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의 과보호와 대학생 자녀의 적응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수행되지는 않았지만,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자녀관계와 그것이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들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김휘윤(2012), 신지영(2000), 정은희(1992)등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김휘윤(2012)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자아존중감이 자녀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하여 연구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수준이 높을수록 자존감과 대학생활 적응도도 높으며, 자존감이 높은 학생이 대학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신지영(2000)과 정은희(1992)의 연구들에서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적고 독립적일 수록, 그리고 부모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 죄책감, 불안감이 없을수록 대학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연구에서 보듯이 적응에 중요한 요소인 독립성과 높은 자존감등은 과보호를 받는 자녀들에게서는 취약한 특성들이며 책임감, 죄책감, 불안감등은 과보호를 받은 자녀들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특성들로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과보호를 받은 자녀들이 대학생활 적응에 문제를 겪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대학생활 적응에서 학업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학업에 대한 동기, 요구에 부딪혔을 때의 행동, 학업 환경과 관련된 일반적인 만족감, 시간관리, 분명한 목적의식 등이 성공적인 학업적응의 요소가 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과보호를 받고 자란 대학생들은 목표가 불안정하고 인내심, 독립심, 자존감이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업적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2007)은 연구에서 외부적 판단에 지나치게 민감한 학생은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게 되고 낮아진 자아존중감은 대학생의 학업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즉, 외부의 판단에 대한 지나친 민감성에 의해 자아존중감이 낮아진 대학생은 학습영역에서 자신의 유능함이 도전받을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안전한 학습상황을 선택하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개인의 실력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대한 민감성과

낮은 자존감은 과보호를 받고 자란 자녀들에게서 특징적인 모습으로 거론되고 있는 요소로서 이러한 요인들이 대학생의 학업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의 사회적 적응은 새로운 환경에서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수, 교우들과의 관계를 맺는 능력이다. 박은미(1999)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초기 성인기 자녀의 대인관계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대인관계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임을 밝혀냈다. 또한 정은하(2006)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학교에서 교수의 행동을 지각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정도가 영향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부모와의 관계가 부정적인 자녀의 경우 학교에서 교수와의 관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또한 김소라(2003)는 부모와의 애착안정성 정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 본 논문에서, 어린 시절 부모와 형성된 안정적인 애착관계는 성인이 된 이후 자녀가 사회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는 능력에 영향을 미쳐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적응을 위한 양상에서 남녀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학생의 경우 자신감을 심어주고, 긍정적인 평가를 통한 사회적 지지가 적응에 효과적인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자신이 이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자각이 적응에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개인-정서적인 영역에서의 적응은 신체적, 심리적 불편감을 자기 탐색적 과정을 통해 적응적으로 바꾸는 것으로서, 안정된 자기감과 스트레스를 효

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최바울(2007)의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인 적응유연성신념이 높으면 대학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는 양보다는 그것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사고방식에 의해 영향 받는다는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과보호를 받고 자란 학생들은 유연하게 사고하고 외부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난 바, 개인-정서적 영역에서의 적응이 쉽지 않음이 시사된다.

이상과 같이 살펴 본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부모의 과보호 속에서 자란 자녀들에게는 매우 취약한 특성들이다. 물론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겠지만, 과보호적인 양육태도에 의해 형성된 자녀의 낮은 자존감, 불안, 우울, 대인관계 문제, 목표 불안정 등의 문제들은 자녀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자기에,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1) 자기에의 개념

‘자기애(narcissism)’란 용어는 Havelock Ellis(1898)가 남성의 자기 성애에 관한 사례 보고를 위해 그리스의 나르시수스 신화를 인용하면서 심리학 분야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그는 이 사례에서 ‘자기애’란 용어를 ‘성적 감정을 잃게 되며 자기선망에 거의 완전히 몰입되는 경향’이라고 표현하였다

(최혜정, 2009).

이후 자기애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는데, Freud, Kernberg, Kohut, Millon과 Masterson등이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Freud와 Kernberg, Kohut이 주로 자기애를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연구했다면, Millon과 Masterson은 사회문화적인 입장에서 자기애를 연구하였다.

Freud가 1914년 자신의 저서 'On narcissism'을 발표하면서 자기애에 대한 정신분석학계의 관심이 시작되었다. Freud는 자기애는 유아의 심리적 발달상에서 나타나는 정상적 단계로서 자기애는 일차적 자기애(primary narcissism)와 이차적 자기애(secondary narcissism)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설명하였다. 일차적 자기애는 미분화된 심적 에너지가 자아에 부착되는 것으로 이를 '자아리비도'라고 한다. 이러한 에너지의 일부가 성장하면서 '대상애(object love)'로 발전하는데 이 과정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대상에 부착되었던 리비도가(대상 리비도)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경우, 이 경우에 보이는 자기애적 특성을 이차적 자기애라고 하며 이는 병리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강선희, 2002). 리비도(libido)가 대상(object)에서 철회(withdrawal)되어 자기에게 투자되는 자기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그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신에게만 몰입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강연우, 2004). 즉, 일차적 자기애는 대상관계 성립 이전의 상태로 성격발달에 필요한 것이지만, 대상으로부터 퇴행된 이차적 자기애는 개인 정신병리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정보아, 2001).

Kernberg는 자기애가 부모의 거부나 방임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며 Freud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자기애를 설명하였다. Kernberg에 따르면

냉담하고 거부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로 인하여 아이가 지속적으로 이해와 공감을 받지 못하고 애정결핍적인 양육을 받게 되면 아이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느끼면서 세상에 대한 불신감을 형성하게 된다. 그로 인해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문제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이윤조, 2002, 재인용). 즉, 이 세상에서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다.

Freud와 Kernberg는 자기애에 관한 설명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두 사람 모두 자기애는 리비도가 정상적으로 발달할 때 이르게 되는 마지막 단계인 대상애에 도달하지 못한 병리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었다. 이렇게 자기애를 주로 병리적인 현상과 연결시킨 Freud, Kernberg와 달리 Kohut은 자기애를 정상적인 성격구조 발달에 있어서 필수적인 개념으로 보았는데, 자기애가 정상적인 시기에 채워지지 않을 경우 불완전하고 병리적인 정신구조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자기애는 ‘거대자기’와 ‘이상화’의 두 축을 따라 형성되는데 ‘거대자기’영역의 자기가 부족하게 되면 자기 가치감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칭찬과 지지를 필요로 하게 되고 ‘이상화’ 영역의 자기가 부족하게 되면 영향력 있는 타인을 통해 안정감과 방향 감각을 유지하려 한다고 한다. 자기애 형성에는 공감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공감으로 형성된 성숙한 자기는 내부에 적절한 자존감과 가치체계를 가지게 된다고 한다(안봉화, 2011, 재인용).

이와는 달리, Millon(1981)과 Masterson(1985)은 자기애를 정신분석적 입장이 아닌 사회학습 이론의 측면에서 연구하였는데, 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대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Millon(1981)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를 특

별한 존재로 대우하고 많은 관심을 보이며 사랑스럽게 대하고 완벽하다고 믿고 키우기 때문에 그런 부모의 영향에 동일시하여 자녀는 자신이 사랑스럽고 완벽하다고 믿게 된다고 하였다. 자신에 대한 이런 비현실적인 과대평가는 자기애적인 성격 유형을 형성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이윤조, 2002, 재인용). 따라서 과장된 자기상은 좌절이 일어났을 때 분노를 일으키고 가끔씩 일어나는 성취에 의해 과장된 자기상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조은영, 2011, 재인용). 그는 자기애적 성격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의 요인을 세 가지로 주장하였다. 즉, 부모의 관대함과 과대평가, 학습된 착취적 행동, 그리고 한 자녀 상황이며 세 가지 요인이 각각 혹은 합쳐져서 자기애적 성격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정보아, 2001).

또한 Masterson(1985)은 동양의 경우 자녀중심적인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한 부모의 과보호가 자녀의 자기애를 형성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와는 달리 가족주의적이고 부모자식 간 유대가 강한 동양 문화권에서는 자식을 부모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헌신이 강조되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에게 큰 기대를 걸고 헌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과보호에 의해 자녀의 실제적인 능력은 개발되지 못하고 부모의 기대는 높는데 이를 달성할 능력이 없는 자녀는 부모의 거절을 예상하게 된다. 이것이 두려운 자녀들이 개발하게 되는 것이 과대한 거짓자기이다. 또한 과보호에 노출된 자녀들은 부족한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버림받을 것이 두려워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특성들이 내현적 자기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강선모, 2012, 재인용). 동양의 가족주의 문화는 개인 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가족 구성원 상호

간에 서로의 욕구를 투사하기 쉽고 그로 인해 한국의 어머니들은 자녀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이루고자 하며 자녀의 사회적 성취를 어머니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는 경향이 강하다(강선모, 2012 재인용).

이와 같이 Millon(1981)과 Masterson(1985)은 자기애를 사회 환경적인 영향과 부모자식간의 관계를 통해 알아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다른 정신분석적 입장과 구분되는 특성을 보인다. 자기애에 관한 연구들 중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개인의 성격적인 측면에서 자기애를 주로 살펴 본 연구들도 있지만, 자기애를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 및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한 학자들도 있다. Lasch(1979)는 모든 시대는 자체의 독특한 병리 형태를 발전시키는데 이것은 그 사회의 저변에 있는 성격구조를 과장된 형태로 표현한다고 주장하면서 현대 미국사회를 ‘자기애의 사회’로 규정하였다(강연우, 2004). 현대사회의 긴장과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사람들은 개인주의 논리와 행복추구 경향을 만들어 냈는데 이것이 자기애에 대한 자기애적 몰두의 경쟁적 개인주의 문화를 야기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쟁도 독립도 모두 상실되어 버린다고 하였다(정보아, 2000)

이러한 자기애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는 1980년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 및 통계 편람 제 3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for Mental Disorder-III; DSM-III)에서부터 자기애적 성격장애를 진단범주에 추가했는데, 이후로 병리적인 자기애 현상과 일반적인 자기애 현상에 대한 치료와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미국 정신의학회가 1994년도에 발행한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 4판(DSM-IV)에서는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

의하고 있다. 공상이나 행동에서의 과장성, 칭찬에 대한 욕구, 감정이입의 결여 등의 광범위한 양상이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어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며, 다음 중 5개 이상의 항목을 충족시킬 때 자기애적 성격장애로 진단될 수 있다. 첫째,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장된 지각을 가지고 있다. 둘째, 끝이 없는 성공에 대한 공상과 권력, 탁월함, 아름다움, 또는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공상에 자주 사로잡힌다. 셋째,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하다고 믿고, 특별한 사람이나 상류층의 사람들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그런 사람들(혹은 기관)하고만 어울려야 한다고 믿는다. 넷째, 과도한 찬사를 요구한다. 다섯째, 특권의식을 가진다. 여섯째, 대인관계가 착취적이다. 일곱째, 감정이입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타인들의 감정이나 요구를 인정하거나 확인하려 하지 않는다. 여덟째, 자주 타인들을 질투하거나 타인들이 자신에 대해 질투하고 있다고 믿는다. 아홉째, 거만하고 방자한 행동이나 태도를 보인다 (APA, 1994).

이상과 같이 자기애에 관한 개념과 그 병리적 특성에 관한 논의들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관찰되는 자기애의 성향은 Millon과 Masterson이 언급한 것처럼 부모의 과도한 애정과 통제적 양육방식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에 관한 Millon과 Masterson의 사회문화적인 입장에 무게를 두고 ‘자기애’를 다루고자 한다.

2) 내현적 자기에 및 외현적 자기에의 특성

DSM-IV(1994)와 DSM-III-R(1987)에서 기술되고 있는 자기에적 성격장애의 특징은 Kernberg(1975)에 의해 묘사된 자기에의 특성에 따라 공격적이고 외현적이며 외향화된 자기에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임상가들은 DSM-IV에 표시된 자기에와 표면적으로는 다른 특성을 보이지만 유사한 역동과 정서적, 인지적 특질을 지닌 자기에적 병리가 존재한다는 것에 주목해 왔으며, 현상적 관찰에 따라 자기에를 두 가지 유형인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Cooper, 2000; Kohut, 1971; Winl, 1991; 홍영미, 2007에서 재인용).

또한 Akhtar와 Thomson(1982)는 자기에가 자기개념, 대인관계, 사회적 적응, 윤리와 규범과 이상, 사랑과 성, 인지적 스타일 등 여섯 가지 영역에서 결함이 있는 것으로 기술하며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로 구분하였다(차타순, 2002). 이는 이제까지의 정신분석적 이론을 종합하고 자신들의 임상적 경험과 다른 임상가들의 임상적 관찰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한수정, 1999).

이들에 따르면,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는 근원적으로는 양가적인 자존감(ambivalent self-esteem)과 병리적인 응대성이라는 핵심특성을 갖지만, 그것의 발현 양상은 상이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고 한다. Akhtar와 Thomson(1982)가 제시한 내현적 자기에와 외현적 자기에의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1> Akhtar와 Thomson(1982)의 자기에 하위유형 구분(오홍석, 2007, 재인용)

영역	외현적	내현적
자기개념	웅대성, 뛰어난 성취에 대한 환상, 자신이 독특하다는 과장된 감각, 특권의식, 자신이 취약하지 않다는 착각	열등감, 자기의심, 수줍음, 취약함, 비판과 현실적 좌절에 대한 민감성
대인관계	다수와 사귀지만 피상적인 관계, 타인으로부터 찬사를 받으려는 강렬한 욕구, 타인에 대한 멸시, 공감의 부족, 집단 활동에 진심으로 참여하지 않음.	타인에 대한 만성적인 이상화와 강한 시기, 칭찬에 대한 열망
사회적 적응	사회적으로 성공하였거나,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거짓 승화, 야심이 강함	목표 없음, 만성적인 지루함, 불확실, 직업적·사회적 정체성에 대해 만족하지 못함, 다양하지만 피상적인 흥미
윤리규범 이상	전형적인 겸손, 실생활에서 돈에 대한 거짓된 경멸, 독특하고 균형이 맞질 않는 도덕관념, 겉으로는 도덕적, 사회정치적, 미학적 문제에 대해 열성을 보임	호의를 얻기 위해 쉽게 가치를 바꿈, 병리적으로 거짓말, 진실된 관여가 없고 양심도 타락하기 쉬움, 권위에 대한 불경
사랑과 성	결혼 불안정, 유혹적, 풍기가 문란, 성적 억제 부족	사랑을 지속시키지 못함, 분리의 어려움, 환상이나 일탈
인지적 양식	현실을 자기중심적으로 지각, 명확, 웅변적. 논쟁에서는 회피적이지만 논리적으로는 일관적, 자기중심적 현실지각	사건의 객관적 측면에는 주의를 덜 기울임. 기억에 공백이 있기도 함. 과도하게 추상적 혹은 구체적이기를 반복

즉, 외현적 자기애의 핵심적인 특징은 웅대한 자기표상과 오만한 태도이며, 이를 걸어로 드러내 타인의 찬사를 받고자 하는 경향을 가진다.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다른 사람의 반응에 매우 민감하고, 수줍어하며,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을 피하고, 경멸이나 비판의 증거가 있는지 살피기 위해 다른 사람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며, 감정에 상처를 입어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쉽게 느끼는 등의 경향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차타순, 2002, 재인용).

이렇게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는 상이한 특징을 보이는데, 적응의 차원에서 볼 때 내현적 자기애가 외현적 자기애보다 훨씬 적응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Wink(1991)는 내현적 자기애가 외현적 자기애보다 더 역기능적이어서 안녕감, 유능감, 적응성이 부족하고 우울과 낮은 자존감, 대인관계의 어려움, 피학적인 특성들과 더 관련을 보인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Akhtar 와 Thompson(1982)이 제안한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참고하여 내현적 자기애 척도 (Covert Narcissistic Scale; Hendin & Cheek, 1997)를 번안하여 타당화 하였다. 이들은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특징을 ① 목표설정의 어려움, 미래·직업·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불확실성 및 불만족을 나타내는 목표불안정, ② 매사에 뛰어난 사람이 되어 주목·칭찬·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를 나타내는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③ 착취적인 대인관계, 자기중심성, 그리고 특권의식을 중심으로 하는 착취/자기중심성, ④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평가에 예민한 모습을 나타내는 과민/취약성, ⑤ 자신감이 없고 소심한 모습을 나타내는 소심/자신감 부족의 5개 하위요인으로 나타냈다.

외현적 자기애는 Raskin과 Hall(1979)이 비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기애적 성격검사(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를 통하여 측정하는데, 이 척도에 포함된 외현적 자기애의 성격특성은 ① 지도력/권위, ② 특권의식/과시, ③ 허영심, ④ 응대성, ⑤ 주장성/주도성, ⑥ 우월의식, ⑦ 칭찬/주목받고 싶은 욕구 등 7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박세란(2005)이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를 구분하여 수행한 연구에서 외현적 집단과 내현적 집단 간에 자존감, 우울, 공격성 등에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즉, 외현적 자기애집단은 자존감이 높고, 우울하지 않았던 반면, 내현적 자기애 집단은 외현적 자기애 집단보다 공격성과 적대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은영, 2011).

이와 같이,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는 내적으로 비슷한 역동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에서 매우 상이하다. 따라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대학생활 적응에서 자기애적 성향이 미치는 영향은 외현적, 내현적 특성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즉, 외현적인 자기애는 겉보기에는 사교적이고 활발하여 대학생활에 매우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공허하고 정서적으로 부적응적인 문제를 겪을 수 있다.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우울하고, 불안하며, 위축되는 특성 상 대학생활 적응 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학생 자녀의 적응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3)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대학생활 적응과 내현적 및 외현적 자기애의 관계

Masterson(1985)은 동양의 자녀중심적인 부모 양육태도인 과보호가 자녀의 자기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는데,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애정은 자녀가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버림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도록 하고, 이러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자녀들은 과대한 자기감을 형성하여 자기애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부모의 과보호에 의해 형성된 자기애적 성격은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을 때 많은 부적응적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에 의해 형성된 자기애적 성격 경향이 자녀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기애적 성향,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 대해 직접적으로 연구한 논문이 많지 않지만, 몇몇 연구들에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기애적 성격장애간의 관련성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전아영(2006), Joshua D(2011), Jellema(2000), Robert S(2006)의 연구에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관련성을 일괄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강선모(2012)는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중 목표 불안정과 소심/자신감 부족이 부모의 과보호와 정적인 상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이는 부모

가 과보호 한다고 느낄수록 자신감이 부족하고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며, 미래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데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의미를 의미한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와 높은 상관을 보이는 불안, 우울 등의 문제들과 낮은 자존감 등이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음을 이미 살펴보았다(신민진, 2009; 심종욱, 2011; 정채숙, 2011; 이민경, 2011; 김성희, 2011)

외현적 자기애와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들에서 Irma. G. H(2005)는 외현적인 자기애 성격 경향을 가진 성인 및 청소년 범죄자들의 경우 부모에게 과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홍영미(2007)는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중 과잉기대가 외현적 자기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도 검토하였는데, 방치와 낮은 합리적 설명이 내현적 자기애의 경우 가장 큰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과보호와 자기애적 성격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내현적 자기애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안봉화(2011)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방어기제를 사용하고, 소극적이며 회피적이라는 것을 밝혔다. 강예모(2011)는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가 자신의 감정과 사고 등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하고 자신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는 자의식을 통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김나예(2012)도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일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해 민감하고 그로 인해 사회불안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민(2009)역시

내현적 자기애가 비합리적 신념을 통해서 사회불안 및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여기에서의 비합리적 신념은 아무런 근거도 없으면서 비실제적이고 비윤리적인 사고나 신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외현적 자기애가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최정희(2005)는 고등학생 집단의 경우 외현적 자기애 성향은 또래관계의 하위요인 중 사회적 지지, 친밀, 우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정보아(2001)는 외현적 성격장애의 하위 특성인 과시/특권의식이 강할수록 대인관계에서 지배성, 보복성, 냉담성, 사회 회피성, 간접성의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차타순(2002)의 연구에서 외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고등학생일수록 비행성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애의 하위요인으로서는 허영심, 특권의식 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윤조(2002)의 연구에서는 외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대학 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 자기애적 성격특성을 병리적인 현상으로 보고 적응에 부정적인 요인으로만 생각했던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는 다소 상반되는 것이다. 연구자는 자기애적 성격특성이 성숙한 방향으로 활용되면 적응에 오히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가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에서 두 자기애 성향의 차이점을 밝힌 연구들도 있었다. 이준득(2005)의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가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보다 더 우울하고, 더 적대적이고, 타인비하의 적대적 자동 사고를 더 많이 하고 일상적으로 더 많이 분노하지만 그 분노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영(2011)역시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의 분노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내현적 집단과 외현적 집단 모두 통제집단보다 일상적으로 더 많은 분노를 경험하지만, 내현적 자기애 집단은 분노를 억제하며 자신에게 분노를 유발하지 않은 대상에게 분노를 표출시키는 전위공격성도 다른 두 집단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강연우(2004)의 연구에서 외현적 자기애는 적응적인 방어유형과 내현적 자기애는 부적응적인 방어유형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외현적 자기애가 내현적 자기애보다 적응적이라는 기존 연구들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외현적 자기애가 적응적이라고 하더라도 미성숙한 방어기제인 행동화, 소비, 공상등과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부정적인 측면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는 7개 대학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7개 대학의 소재지는 서울 및 경기도, 경상도, 강원도 등 이었다. 자료수집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약 12일 동안 이었다. 총 55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으나, 자료 검토 후 무응답, 불성실한 답변을 한 설문을 제외하고 최종 400부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에 대한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나이, 학년을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21.76세였으며, 자세한 특성은 아래의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

변인	구분	N(=400)	백분율(%)
성별	남	151	37.8%
	여	249	62.3%
학년	1학년	60	15%
	2학년	132	33%
	3학년	104	26%
	4학년	104	26%

2. 측정도구

1) 과보호 척도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과보호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은영(2008)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과보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한국 문화권의 특성이 반영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에 대한 자녀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25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하위 항목으로는 ① 부모의 과잉 교육열로 인한 지나친 기대를 나타내는 과잉기대, ② 부모의 지나친 간섭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과잉간섭, ③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밀착하여 엄격한 통제와 관리를 하는 밀착통제, ④ 부모 자신의 불안이 자녀에게 투사되어 자녀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투사적 과보호, ⑤ 자녀에 대한 과잉애정과 불안을 나타내는 자녀분리불안의 5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 각 하위 요인은 5문항으로 구성되고, 4점 척도(매우 그렇다-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과보호 성향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원래 정은영(2008)이 개발한 척도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현재 양육태도만을 보고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대학생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부모 모두에 대해 10대 후반까지의 기억을 회상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정은영(2008)의 연구에서는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과잉기대 .89, 과잉간섭 .85, 밀착통제 .78, 투사적 과보호 .83, 자녀 분리불안 .6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과보호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과 신뢰도 계수

하위요인	문항번호	Cronbach's α	
		부	모
과잉기대	1, 6, 11, 16, 21	.80	.82
과잉간섭	2, 7, 12, 17, 22	.53	.45
밀착통제	3, 8, 13, 18, 23	.80	.78
투사적 과보호	4, 9, 14, 19, 24	.80	.82
자녀 분리불안	5, 10, 15, 20, 25	.64	.76
전체	총 25문항	.89	.88

2) 내현적 자기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Akhtar와 Thomson(1982)이 자기에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징으로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개발한 ‘내현적 자기에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개의 하위척도를 사용하여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위 척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목표설정의 어려움, 미래·직업·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불확실성 및 불만족을 나타내는 목표불안정, ② 매사에 뛰어난 사람이 되어 주목·칭찬·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를 나타내는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③ 착취적인 대인관계, 자기중심성, 그리고 특권의식을 중심으로 하는 착취/자기중심성, ④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평가에 예민한 모습을 나타내는 과민/취약성, ⑤ 자신감이 없고 소심한 모습을 나타내는 소심/자신감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은 8~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의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0이었으며, 하위항목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목표불안정 .89,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81, 착취/자기중심성 .74, 과민/취약성 .80, 소심/자신감 부족 .77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과 신뢰도 계수

하위요인	문항번호	Cronbach's α
목표불안정	5, 15, 20*, 23, 29, 30, 37, 42, 44	.93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2, 6, 7, 13, 17, 24, 33, 38, 43	.78
착취/자기중심성	4, 9, 11, 12, 16, 22, 27, 35, 45	.78
과민/취약성	3, 8, 10, 14, 19, 25, 26, 31, 36, 40	.84
소심/자신감 부족	1, 18, 21, 28, 32, 34*, 39, 41	.80
전체	총 45문항	.92

*은 역 채점 문항임.

3) 외현적 자기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외현적 자기에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Raskin과

Hall(1979)이 비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기애적 성격검사(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를 한수정(199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하나의 문항에 자기애적인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으로 구성된 두 문항이 있으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채점은 외현적 자기애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A 문항에 응답하면 1점을 얻게 되는 문항(B에 응답하면 0점)과 외현적 자기애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B 문항에 응답하면 1점을 얻게 되는 문항(A에 응답하면 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점수는 1점에 체크된 문항의 모든 개수를 합산한 것이다. 총 4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척도의 점수범위는 0~4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외현적 자기애 성격특성이 높은 것을 시사한다. 하위요인으로는 ① 다른 사람들 보다 우위에 서서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타인을 조종하고자 하는 지도력/권위, ②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고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바라는 특권의식/과시, ③ 탁월함, 아름다움, 끝없는 성공에 대해 공상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얻고자 하는 허영심, ④ 자신의 중요성, 성취에 대해 과장된 지각을 가지는 웅대성, ⑤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일을 주도해 나가고,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주장성/주도성, ⑥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월의식, ⑦ 타인으로부터 과도한 찬사를 받고자 하는 칭찬/주목받고 싶은 욕구의 7가지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한수정(1999)의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Cronbach's α)가 .8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외현적 자기에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과 신뢰도 계수

하위요인	문항번호	Cronbach's α
지도력/권위	5, 12*, 13*, 25*, 27*, 32, 33*	.70
특권의식/파시	2*, 14*, 20, 21*, 24*, 38*	.25
허영심	15, 17, 19, 28, 29*	.51
응대성	8*, 9, 18, 34*, 39*, 40	.62
주장성/주도성	1*, 3*, 10, 11*, 22, 31*, 36*	.61
우월의식	6*, 7, 16*, 23, 35	.43
칭찬/주목 받고 싶은 욕구	4, 26, 30*, 37*	.52
전체	총 40문항	.85

*은 A에 응답할 경우 1점으로 채점(B에 응답한 경우 0점)

4) 대학생활 적응 척도

대학생활 적응척도(Student Ado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는 Baker 와 Siryk이 1984년에 제작한 후 김은정(1992)이 번안한 것을 기초로 조수진(2000)이 재 번안, 수정 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학생의 적응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하위 척도가 있다. 하위 척도를 살펴보면, ① 대학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를 나타내는 학업적 적응, ② 대인-사회적 요구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를 나타내는 사회적 적응, ③ 일반적인 심리적 스트레스 및 신체적 문제와 관련된 정도에 어떻게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개인-정서적 적응, ④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학에의 만족도 4가지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9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60개의 대학생활 적응 척

도 문항들이 본래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잘 나타내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래 측정하고자 했던 하위 척도에 적재되지 않고 다른 하위 척도에 적재된 문장을 제외하고 총 45개의 문항이 최종 사용되었다. 하위 항목별로 살펴보면 ① 학업적 적응 척도에서는 2문항(20, 33), ②사회적응 척도에서는 3문항(15, 45, 50), ③개인-정서적 적응 척도에서는 2문항(27, 43)이 제외되었고, ④대학만족도 척도는 모든 문항이 잘못 적재된 것으로 나타나 척도 자체를 제외 시켰다.

조수진(2000)의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Cronbach's α)가 .93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척도는 학업적 적응이 .85, 사회적 적응이 .85, 개인-정서적 적응이 .86, 대학 만족도가 .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대학생 생활 적응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과 신뢰도 계수

하위요인	문항번호	Cronbach's α
학업적 적응	3, 5, 6*, 9*, 12, 16*, 18, 21, 22*, 23, 25, 30, 35*, 37, 38, 44, 46*, 48, 51*, 55, 59	.88
사회적 적응	1, 4, 8, 13, 17, 26, 31, 36*, 40, 42*, 56, 58	.89
개인-정서적 적응	2*, 7*, 10*, 11*, 19*, 24*, 29*, 32*, 34*, 39*, 49, 57*	.86
전체	총 45문항	.92

*은 역 채점 문항임.

47, 60은 속하는 하위 척도 없음.

3.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주요변인들(모 과보호, 부 과보호, 내현적 자기애, 외현적 자기애, 대학생활 적응)에 대해 기술적 통계 분석 및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t-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내현적 및 외현적 자기애,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성별 차이검증

남학생 151명(37.8%), 여학생 249명(62.3%) 총 40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측정한 주요변인들(부모의 과보호, 내현적 자기애, 외현적 자기애, 대학생활 적응)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척도별로 남녀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남녀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따로 측정하였으며,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측정 결과, 몇몇 척도에서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모 과보호 척도의 경우, 하위척도인 과잉기대에서 남학생의 평균($M=2.29$)이 여학생의 평균($M=2.13$)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t=2.37, p<.05$), 반대로 밀착통제에서는 여학생의 평균($M=2.14$)이 남학생의 평균($M=1.92$)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t=-3.36, p<.05$).

부 과보호 척도의 경우, 모 과보호 척도와 마찬가지로 하위척도인 과잉기대에서 남학생의 평균($M=2.23$)이 여학생의 평균($M=2.07$)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t=2.12, p<.05$), 반대로 밀착통제에서는 여학생의 평균($M=1.93$)이 남학생의 평균($M=1.69$)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t=-3.77, p<.05$).

부 과보호 척도의 하위척도인 투사적 과보호에서는 여학생의 평균($M=1.68$)이 남학생의 평균($M=1.52$)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2.68, p<.05$).

내현자기 척도의 경우, 내현자기 척도 전체에서 여학생의 평균($M=2.90$)이

남학생의 평균($M=2.74$)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t=-3.06, p<.05$), 하위척도인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에서도 여학생의 평균($M=3.47$)이 남학생의 평균($M=3.34$)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2.09, p<.05$). 과민/취약성 척도에서도 여학생의 평균($M=2.95$)이 남학생의 평균($M=2.58$)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t=-4.89, p<.05$).

반면 외현적 자기애의 하위 척도인 웅대성의 경우, 남학생의 평균($M=0.47$)이 여학생의 평균($M=0.42$)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2.11, p<.05$).

대학생활 적응 척도에서는, 대학생활 적응 척도 전체에서 남학생의 평균($M=5.50$)이 여학생의 평균($M=5.22$)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t=2.26, p<.05$), 하위 척도인 개인-정서적 적응 척도에서도 남학생의 평균($M=5.42$)이 여학생의 평균($M=4.95$)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3.33, p<.05$).

부모의 과보호 및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의 하위척도에서 남녀에 따른 차이점은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했던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었다(김선희, 2011; 김지연, 2010; 김희윤, 2012). 따라서 이후의 분석에서는 남녀 집단을 구분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점을 분석해 보았다.

<표 7>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성별 차이검증

	전체(n=400)	남자(n=151)	여자(n=249)	t
모과보호 전체	1.88(.41)	1.88(.41)	1.87(.41)	0.04
과잉기대	2.19(.65)	2.29(.65)	2.13(.64)	2.37*
과잉간섭	1.28(.30)	1.28(.30)	1.27(.29)	0.41
밀착통제	2.06(.66)	1.92(.65)	2.14(.65)	-3.36*
투사적 과보호	1.85(.61)	1.84(.60)	1.85(.62)	-0.26
자녀분리불안	2.00(.52)	2.05(.49)	1.97(.54)	1.50
부과보호 전체	1.71(.41)	1.68(.39)	1.74(.42)	-1.51
과잉기대	2.13(.74)	2.23(.78)	2.07(.71)	2.12*
과잉간섭	1.18(.26)	1.17(.24)	1.19(.28)	-0.54
밀착통제	1.84(.63)	1.69(.57)	1.93(.65)	-3.77*
투사적 과보호	1.62(.60)	1.52(.56)	1.68(.62)	-2.68*
자녀분리불안	1.80(.61)	1.77(.60)	1.82(.61)	-0.93
내현자기 전체	2.84(.52)	2.74(.52)	2.90(.51)	-3.06*
목표불안정	2.82(.93)	2.74(.91)	2.87(.93)	-1.40
인정욕구	3.42(.60)	3.34(.61)	3.47(.59)	-2.09*
자기중심성	2.40(.62)	2.33(.64)	2.44(.60)	-1.77
괴민취약성	2.81(.75)	2.58(.75)	2.95(.71)	-4.89*
자신감부족	2.74(.70)	2.70(.69)	2.77(.70)	-0.92
외현자기 전체	0.45(.18)	0.46(.17)	0.45(.18)	-.67
지도력/권위	0.44(.29)	0.45(.28)	0.43(.30)	0.44
특권의식/과시	0.38(.22)	0.38(.21)	0.37(.23)	0.36
허영심	0.44(.26)	0.42(.27)	0.46(.26)	-1.46
웅대성	0.44(.26)	0.47(.27)	0.42(.26)	2.11*
주장성/주도성	0.41(.25)	0.42(.25)	0.40(.25)	0.83
우월의식	0.38(.27)	0.38(.26)	0.38(.27)	-0.14
칭찬/주목욕구	0.67(.30)	0.69(.30)	0.66(.30)	0.84
대학적응 전체	5.33(1.21)	5.50(1.13)	5.22(1.24)	2.26*
학업적응	4.74(1.12)	4.83(1.12)	4.69(1.12)	1.22
사회적응	5.50(1.45)	5.62(1.43)	5.42(1.45)	1.35
정서적응	5.13(1.38)	5.42(1.36)	4.95(1.36)	3.33*

주. 표시된 값은 평균; ()안은 표준편차. * $P < .05$

모두 등분산 가정됨($F > 0.05$).

2.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내현적 자기애, 외현적 자기애, 대학생 생활 적응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인 부모의 과보호, 내현적 자기애, 외현적 자기애, 대학생 생활 적응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남녀 학생 별로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표 8>,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 <표 8>에 따르면 남학생 집단의 경우 부모의 과보호는 모두 대학생 생활 적응과 부적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280, p<.01/r=-.176, p<.05$). 반면, 여학생 집단의 경우 부모의 과보호 모두 대학생 생활 적응에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모두에서 내현적 자기애는 대학생 생활 적응과 부적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578, p<.01/r=-.617, p<.01$).

셋째,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모두에서 외현적 자기애는 대학생 생활 적응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r=.372, p<.01/r=.371, p<.01$).

넷째, 남학생 집단에서 부모의 과보호는 내현적 자기애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모 $r=.371, p<.01$ /부 $r=.381, p<.01$). 여학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과보호는 내현적 자기애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모 $r=.274, p<.01$ /부 $r=.229, p<.01$).

다섯째, 남학생 집단의 경우 부모의 과보호는 외현적 자기애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 집단의 경우 부모의 과보호는 모두 외현적 자기애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모 $r=.169, p<.01$ /부 $r=.150, p<.05$).

정리하자면, 부모의 과보호가 남학생의 대학생 생활 적응과는 상관이 있는

데 반해, 여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모의 과보호가 남학생의 경우 외현적 자기애와 상관이 없으나 여학생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에서 성차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부모의 과보호가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했던 원래의 연구 가설을 남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함을 시사한다.

내현적 자기애는 남녀집단 모두에서 대학생활 적응 및 부모의 과보호척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 바,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가 자녀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남녀 학생별로 부모의 과보호 하위척도와 내현적 자기애, 외현적 자기애, 대학생활 적응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남학생의 경우 내현적 자기애와 모 과보호 하위 척도 중 투사적 과보호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r=.412, p<.01$), 과잉기대 역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323, p<.01$). 대학생활 적응의 경우 모의 과보호 중 역시 투사적 과보호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r=-.325, p<.01$), 밀착통제($r=-.209, p<.01$), 과잉간섭($r=-.209, p<.05$)에서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모과보호와 외현적 자기애 간에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와 부과보호의 하위척도간의 상관에서는 역시 투사적 과보호($r=.344, p<.01$)와 밀착통제($r=.344, p<.01$)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활 적응과 부의 과보호 하위척도 간의 관계에서는 투사

적 과보호($r=-.229, p<.01$)가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부과보호와 외현적 자기애 간에는 상관이 없었다.

정리하자면, 남학생의 경우 부모의 과보호 모두에서 내현적 자기애, 대학생활 적응과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하위 척도는 투사적 과보호이며, 그 다음으로 밀착통제도 부모의 과보호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과보호와 외현적 자기애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여학생의 경우, 모의 과보호 하위 척도 중 투사적 과보호($r=.291, p<.01$)와 밀착 통제($r=.221, p<.01$)가 내현적 자기애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은 남학생과 유사하다. 하지만 부 과보호 하위척도의 경우 투사적 과보호($r=.200, p<.01$) 이외에 과잉기대($r=.204, p<.01$)가 내현적 자기애와 유의미한 상관을 가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여학생에서는 모 과보호 하위척도인 과잉기대($r=.175, p<.01$), 과잉간섭($r=.134, p<.05$)이 외현적 자기애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하지만, 남학생과는 달리 부모의 과보호 척도와 대학생활 적응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비교했을 때 부모의 과보호 하위 척도가 내현적 자기애와 갖는 상관의 정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역시 투사적 과보호와 밀착통제가 유의미한 상관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표 8> 남학생 집단의 부모 과보호와 내현적 자기애, 외현적 자기애,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1	1-1	1-2	1-3	1-4	1-5	2	2-1	2-2	2-3	2-4	2-5	3	4	5
1	1														
1-1	.768**	1													
1-2	.664**	.347**	1												
1-3	.861**	.618**	.468**	1											
1-4	.879**	.529**	.597**	.750**	1										
1-5	.574**	.234**	.375**	.280**	.420**	1									
2	.459**	.444**	.178*	.392**	.385**	.250**	1								
2-1	.342**	.512**	.116	.226**	.212**	.132	.728**	1							
2-2	.247**	.152	.287**	.156	.211**	.198*	.569**	.237**	1						
2-3	.358**	.306**	.123	.394**	.361**	.064	.768**	.469**	.386**	1					
2-4	.353**	.195*	.167*	.368**	.416**	.129	.795**	.367**	.429**	.621**	1				
2-5	.277**	.243**	.036	.194*	.156	.376**	.597**	.176**	.366**	.193*	.405**	1			
3	.371**	.323**	.158	.299**	.412**	.137	.381**	.301**	.211**	.344**	.344**	.112	1		
4	-.041	.001	-.063	-.024	-.158	.090	.013	.036	.050	-.064	-.104	.134	-.295**	1	
5	-.280**	-.156	-.209*	-.209**	-.325**	-.167*	-.176*	-.151	-.094	-.087	-.229**	-.040	-.578**	.372**	1

1. 모 과보호 1-1. 모 과잉기대 1-2. 모 과잉간섭 1-3. 모 밀착통제 1-4. 모 투사적과보호 1-5. 모 분리불안 2. 부 과보호 2-1. 부 과잉기대 2-2. 부 과잉간섭 2-3. 부 밀착통제
 2-4. 부 투사적과보호 2-5. 부 분리불안 3. 내현적 자기애 4. 외현적 자기애 5. 대학생활 만족도

** $p < .01$, * $p < .05$

<표 9> 여학생 집단의 부모 과보호와 내현적 자기애, 외현적 자기애,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1	1-1	1-2	1-3	1-4	1-5	2	2-1	2-2	2-3	2-4	2-5	3	4	5
1	1														
1-1	.737**	1													
1-2	.596**	.361**	1												
1-3	.851**	.587**	.450**	1											
1-4	.858**	.440**	.444**	.720**	1										
1-5	.594**	.209**	.241**	.264**	.487**	1									
2	.546**	.393**	.318**	.435**	.428**	.420**	1								
2-1	.412**	.437**	.216**	.290**	.274**	.269**	.685**	1							
2-2	.277**	.146**	.381**	.191**	.190**	.223**	.603**	.311**	1						
2-3	.453**	.291**	.244**	.446**	.389**	.260**	.807**	.511**	.418**	1					
2-4	.486**	.278**	.248**	.390**	.482**	.359**	.854**	.360**	.491**	.647**	1				
2-5	.296**	.185**	.159*	.202**	.164**	.387**	.640**	.142*	.312**	.271**	.590**	1			
3	.274**	.165**	.178**	.221**	.291**	.150*	.229**	.204**	.152*	.164**	.200**	.103	1		
4	.169**	.175**	.134*	.121	.052	.155*	.150*	.084	.095	.090	.117	.161*	-.211**	1	
5	-.048	.080	-.032	-.001	-.146*	-.092	-.078	-.075	-.107	-.073	-.064	-.010	-.617**	.371**	1

1. 모 과보호 1-1. 모 과잉기대 1-2. 모 과잉간섭 1-3. 모 밀착통제 1-4. 모 투사적과보호 1-5. 모 분리불안 2. 부 과보호 2-1. 부 과잉기대 2-2. 부 과잉간섭 2-3. 부 밀착통제
 2-4. 부 투사적과보호 2-5. 부 분리불안 3. 내현적 자기애 4. 외현적 자기애 5. 대학생활 만족도

** $p < .01$, * $p < .05$

3.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 검증

부와 모의 지각된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위계적 회귀분석법을 이용하였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한다. 2단계,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한다. 3단계,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한다. 4단계,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한꺼번에 넣고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한다. 1단계에서 도출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값이 4단계에서 도출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값보다 커야 한다. 즉,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이 독립변인과 매개변이 함께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보다 커야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모든 조건에 부합하다면, 매개효과가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이미 앞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대학생활 적응, 내현적 자기애 및 외현적 자기애의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여학생 집단의 경우 부모의 과보호와 대학생활 적응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부모의 과보호와 대학생활 적응, 내현적 자기애와의 상관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과보호가 자녀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부모의 과보호와 외현적 자기애간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외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에 대해서는 검증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학생 집단에 있어서 부모의 과보호가 자녀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였다.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첫째, 독립변인인 부모의 과보호가 종속변인인 대학생활 적응을 유의하게 설명하였고($\beta=-.268, p<.05$), 둘째, 매개변인인 내현적 자기애가 종속변인인 대학생활 적응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beta=-.578, p<.05$). 셋째, 독립변인인 부모의 과보호가 매개변인인 내현적 자기애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beta=.440, p<.05$). 넷째, 부모의 과보호와 내현적 자기애를 함께 넣고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과보호는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beta=-.017, p<.05$), 내현적 자기애도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570, p<.05$). 이후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서 1단계에서 도출된 부모 과보호의 회귀계수와 4단계에서 부모 과보호와 내현적 자기애를 함께 넣고 돌린 모델에서의 부모 과보호의 회귀 계수를 비교한 결과 1단계의 회귀계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과보호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 과보호는 남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7.2% 설명했고, 부모 과보호와 내현적 자기애를 포함한 모델은 33.4% 설명하였다.

<표 10> 부모 과보호가 남자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를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단계	변인	β	R^2	ΔR^2	F
독립→종속	부모 과보호→대학생활 적응	-.268	.072	.066	11.550*
매개→종속	내현적 자기애→대학생활 적응	-.578	.334	.329	74.708*
독립→매개	부모 과보호→내현적 자기애	.440	.194	.188	35.764*
독립→종속 매개→종속	부모 과보호→대학생활 적응 내현적 자기애→대학생활 적응	-.017 -.570	.334	.325	37.143*

* $p < .05$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자녀에 의해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 외현적 자기애, 대학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이미 언급된 것처럼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에서 남녀차이가 있는바, 남녀별로 집단을 나누어 과보호가 내현적, 외현적 성격장애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7개 대학 40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남학생은 151명(37.8%), 여학생은 249명(62.3%)이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에 의해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 외현적 자기애, 대학생활 적응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남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에서 부와 모 모두 하위척도인 과잉기대에서는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의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반면 밀착통제 영역에서는 여학생의 평균이 남학생의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부의 투사적 과보호에서는 여학생의 평균이 남학생의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김선희(2011)와 김지연(2010), 김수희(2009), 노경선(2003)등의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던 결론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김지연(2010)은 연구에서 부모의 성별에 따른 과보호 수준 차이를 언급하였는데, 여학생들이 아버지의 투사적 과보호를 높게 지각했다는 점은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김선희

(2011)의 연구에서도 지각된 부모 과보호에서 성차를 보고하였는데, 특히 남학생의 경우 부모의 과잉기대를 여학생보다 높게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살펴봤을 때 부모의 과보호 양상이 남녀별로 특징적인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남성과 여성에게 기대하는 바가 다르며 전통적으로 남성은 성취하고 성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성은 보호되어야 할 존재라는 관념이 부모가 남, 녀 자녀들을 대하는 과정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내현적 및 외현적 자기애 경향에서도 남녀차가 드러났는데, 내현자기애 척도 전체와 그 하위척도인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과 과민/취약성에서 모두 여학생의 평균이 남학생의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반면, 외현적 자기애 척도의 하위 척도인 웅대성에서는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의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들이 내현적 성격장애의 특징인 타인의 평가에 대한 예민성에서 남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는 이인숙(2002)의 연구 결과와, 주로 남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인 과잉기대가 외현적 자기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홍영미(2007)의 연구결과, 그리고 미국의 경우 남자가 외현적 특징에 기반 한 성격장애 진단을 많이 받는다는 보고(권석만·한수정, 2000)에 의해 지지된다. 또한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 성향에서의 이러한 성차는 사회적으로 남성에게는 성취를 여성에게는 관계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활 적응 척도 전체와 그 하위척도인 개인-정서적 적응에서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의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김휘운(2012), 김지연(2010)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두 연구결과 모두 대학생활

적응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적응도가 더 높았으며, 특히 김휘윤(2012)의 연구에서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 척도 중에서 개인-정서 적응이 남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개인적 편차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남녀의 성향 차이에서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남녀모두 비슷한 정도로 정서적인 면에서 적응하고 있다고 해도 여성들은 정서적인 욕구의 기준치가 남성보다 더 높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더 부 적응적이라고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내현적 자기애, 외현적 자기애, 대학생활 적응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남녀별로 상이한 패턴이 나타났다. 우선,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 양육태도와 대학생활 적응도에서 남학생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에게서는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신지영(2000), 정은희(1992), 김지연(2010), 김휘윤(2012)등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보고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독립적이라고 인식할수록 대학생활 적응도가 높으며, 부모의 과보호를 높게 지각할수록 대학생활 적응도가 낮다는 것이다. 이는 부모의 과보호가 남자대학생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하고, 그로 인해 대학생활 부적응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부모의 과보호와 대학생활 적응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적 부모자녀 관계의 특성상 나이 들어서까지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과보호가 어느 정도 용인되며 이러한 관계는 특히 여학생에게 별 다른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학생의 경우 부모의 과보호를 지각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는 남녀 모두에서 대학생활 적응도와 상관성이 나타났으나, 내현적 자기애는 부적인 상관성을, 외현적 자기애는 정적인 상관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이윤조(2002), 안봉화(2011), 강연우(2004), 조은영(2011)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러한 연구들은 내현적 자기애가 외현적 자기애보다 안녕감, 적응성이 부족하고 우울과 낮은 자존감, 대인관계 어려움 등의 특성을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더 부적응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외현적 자기애는 겉으로 보기에 사교적이고 외향적인 모습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인지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과보호와 내현적 자기애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드러났다. 이는 강선모(2012)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인데, 부모의 과보호를 높게 지각하는 학생일수록 내현적 자기애 경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즉,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하지만, 내부의 취약성 때문에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장된 자기감을 형성하여 만회를 시도하고 이로 인해 내현적 자기애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반면, 남학생 집단의 경우 부모의 과보호는 외현적 자기애와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학생 집단의 경우 부모의 과보호는 모두 외현적 자기애와 정적인 상관성을 보였다.

과보호 하위 척도와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 및 대학생활 적응의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남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인 하위 척도

는 부모의 투사적 과보호 척도였다. 투사적 과보호란 부모가 자신의 불안을 자녀에게 투사하여 과보호 하는 것으로, 부모의 불안이 자녀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자녀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는 강선모(2012), 강예모(2011), 김나예(2012), 신현민(2009)등의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부모의 과보호가 직접적으로 또는 내현적 자기애 등을 매개로 하여 자녀의 불안 및 사회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셋째, 상관관계 분석에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남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남학생의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내현적 자기애를 매개로 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의 경우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은 대학생활에서의 적응 수준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내현적 자기애가 부모의 과보호 양육태도와 자녀의 대학생활 적응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아동, 청소년기의 자녀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진학 이후의 성인기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내현적 자기애라는 성격 경향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내현적 성격 경향은 비교적 안정적인 개인적 특성으로서 이후의 삶 속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아동 및 청소년기를 넘어서 성인기에 접어든 대학생 자녀의 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부모의 과보호 관련 연구들은 주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과보호가 대학생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의 과보호, 내현적 자기애, 외현적 자기애, 대학생활 적응이라는 변인들에 대하여 남녀 간 차이를 밝혔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되어 온 결과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함과 동시에, 부모의 과보호에 따른 대학적응 및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 성향에서 성별에 따른 특징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과보호 하위 척도에서 남학생은 과잉기대가 높은 반면, 여학생은 밀착통제가 높으며, 남학생의 경우 외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반면, 여학생은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다는 보고는 기존 연구들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기에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과보호가 자녀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정신병리적으로 보았을 때 성격장애는 청소년 후기에서 성인기 초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비교적 안정적인 개인의 성격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과보호 연구에서는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 성향에 대해서는 다루기가 쉽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기애적 성향을 다룰 수 있었다. 최근 사회적으로 자기애적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거론되고, 이들의 행동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정신병적이라고 뚜렷하게 진단할 수는 없지만, 그 사고와 행동 면에서 많은 병리적인 특징들을 나타내며 그것이 자기 자신 뿐 아니라 주변에까지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과보호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기애적 성격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형성된 자기애적 성격이 대 학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서 자기애적 성격 성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대학에서 적응 문제를 겪는 학생들에 대한 개입과정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 대학 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다양하고 그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지만, 다양한 요인들 중 부모의 과보호와 자기애적 성격 경향이 포함된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문제를 이해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용이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은 모두 자기 보고식 측정 방법을 사용한 것들 이었다. 자녀에 의해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 태도와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 대 학생활 적응을 파악하고자 한 본 연구의 목적과 잘 맞는 척도들이었으나 자기보고식 측정 방법의 한계점들은 남아있다. 이를 인지하고 다음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측정 방법 이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 하는 척도들을 사용하여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

의 과보호와 자기애적 성격 경향 이외에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요인들 이외에 대학생의 적응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선정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주로 20대 초 중반의 대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점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연령과 사회적 배경을 다양화 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석만·한수정(2000). 자기애성 성격장애. 서울 : 학지사.
- 강선모 외(2012). 대학생의 과보호 및 부모화 경험이 내현적 자기애 성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 연구, 19(4), 53-78.
- 강선희(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연우(2004). 자기애와 방어유형 및 대인관계 특성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예모(2011).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 자의식의 매개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나예(2012). 완벽주의와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평가두려움을 매개로 사회 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경(2008). 어머니와 유아의 분리불안과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6(7), 71-84.
- 김선희(2011). 남녀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모의 과보호, 심리적 분리 및 자기 주도 학습 능력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희(2011).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소라(2003). 부모애착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및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숙명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2011).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과보호, 사회적 지지, 사회적 유능감. 단

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지연(2010). 부모의 과보호가 대학생활 적응, 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문화적 특성과 남녀차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지연(2011). 부모의 과보호가 성인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 심리학회지 : 임상, 30(3), 647-661.

김진희(2008). 부모의 돌봄과 과보호가 중학생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 가정교육학회 학술대회, 2008(7), 137-138.

김하경(2008). 중학생의 부모의 양육태도, 자기에 및 스트레스와의 관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희윤(2012).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혜영(1999).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이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나래(2012). 방임, 과보호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사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7, 139-164.

박아청(1998). 과보호의 발달심리학적 의미에 대한 일고찰. 인간발달연구, 5(1), 53-73.

박은정(1996).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 어머니의 양육태도 현황 :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혜리(2010). 청소년의 집단 따돌림 경험 및 자아탄력성,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민진 외(2010).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인지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2(2), 459-477.
- 신지영(2000). 부모와의 갈등적 독립 및 가족응집력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현민(2009).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사회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 비합리적 신념을 매개변인으로.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종옥(2011).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태도와 자아 존중감 및 진로성숙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봉화(2011). 내현적 자기애와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홍석(2007).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문제유형.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관형 · 장용규 · 안현미(2000). 교육대학 남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만족도 연구. 학생 생활 연구 : 서울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편, 26, 111-145.
- 이민경(2011). 모의 과보호와 행동억제 기질이 청소년의 걱정애 미치는 영향 : 지각된 통제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병래(1991). 결혼 전 여성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진(2007). 사회소속감이 대학생의 학업 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교육 논총, 26(2), 117-128.

- 이숙 외(2006).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성, 위축 및 자기
유능감. 한국 지역사회 생활과학회지, 17(2), 69-79.
- 이슬기(2011). 사회초년생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직무만족도와 조직 내 사
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광운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 이윤조(2002). 자기애적 성격특성과 자기효능감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홍익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인숙(2002). 대학생의 자기애 성향과 대인불안 및 방어성간의 관계. 서강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원영(1998). 한국인의 심리에 비추어 본 양육태도. 한국교육문제 연구논문
집, 13(1), 1-18.
- 이준득(2005). 내현적 ·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분노특성.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원유미(2000). 부모의 양육태도, 결혼 만족도, 의사결정유형과 자녀특성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장주연(2009).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와 부적응적 사고 및 정서적
적응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혜정(2010).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과보호가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
에 미치는 영향.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아영(2006).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애적 성격특성
및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남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인옥(2012).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

정서인식 명확성과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남운(2001a). 과민성 자기애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 상담과 심리치료, 13(1), 193-216.

정보아(2001). 대학생의 자기애적 성격과 대인관계 성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은영(2008). 과보호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은영 · 장성숙(2008).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 척도 개발 :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0(2), 193-312.

정은희(1992).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정채숙 외(2001).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교육연구, 17, 1-19.

조수진(2000).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 정도와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조은영(2011).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분노특성과 전위공격성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차영희(2007).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행동 및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유치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타순(2002). 자기애적 성격 성향자의 심리적 특성과 비행성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바을(2007). 대학생의 적응유연성 신념이 대학생활의 적응과 스트레스 조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정미(1999).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 변인의 인과 모형 분석.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정희(2005). 고등학생의 자기애적 성격특성과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혜정(2009).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 성향집단의 MMPI-2 프로파일 유형과 자아 방어기제 특징.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수정(1999).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외현적·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홍강의(2005). 소아정신의학. 서울 : 중앙문화사.
- 홍나영(2010).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와 진로미결정의 관계 :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홍영미(2007). 대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및 기질이 외현적·내재적 자기애 성향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khtar, S. & Thomson, A.(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1), 12-20.
- Americal Psychiatric Association(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for Mental Disorders(4rd ed). Waxhington DC : Author.

- Atwater, E.(1984). *Psychology of Adjustment : personal growth in a changing world*.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 Hall.
- Baker, R. W. & Siryk, B.(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311, 179-189.
- Doh. H. & Falbo. T.(1999). *Social competence, maternal attentiveness, and overprotectiveness : Only children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3, 149-162.
- Erickson, E. H.(1968). *Youth and Crisis*. New York : Norton.
- Freud, S.(1953). *On narcissism : An Introduction*. London : Hogarth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14).
- Irma. G. H.(2005). *Parental Rearing Styles and Personality Disorders in Prisoners and Forensic Patients*.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Clin Psychol Psychother*, 12, 191 - 200.
- Jellema(2000). *Insecure Attachment States: Their Relationship to Borderline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s and Treatment Process in Cognitive Analytic Therapy*.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Clin Psychol Psychother*, 7, 138 - 154.
- Joshua D.(2011).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m : A Nomological Network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79(5), October.
- Kernberg, O.(1975). *Bo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 narcissism*. New York : Jason Aronson.
- Lasch, C. L.(1979). *The culture of narcissism*. New York : Norton.

- Lazarus, R, S.(1976). *Patterns of Adjustment*(3rd). New York : Mcgrow-Hill Book Company.
- Levy, D.(1931). Maternal Overprotection and Rejection. *Archives of Neurology and Psychiatry*, 25, 886-889.
- Levy, D.(1943). *Maternal overprotection*.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 Levy, D. (1970). The concept of maternal overprotection. In E. J. Anthony & T. Benedek.(Eds.). *Parenthood : Its Psychology and psychopathology*, 9, 387-409. Boston: Little, Brown.
- Masterson, S.F.(1985). *The Real Self*. New York : Wiley.
- Millon, T.(1981). *Disorder and personality*. New York : Wiley.
- Nelson & Erwin(2000). *Parts who love too much : How good parents can learn to love more wisely and develop of character*. New York : Harper&Row.
- Overbeek, G. & Have, M. ten. & Volleberge, W. & Graaf, R. de.(2007). Parental lack of care and overprotection.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2(2), 87-93.
- Parker, G.(1979a). Parental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depressive disorder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4, 138-147.
- Parker, G.(1983). *Parental overprotection : A Risk Factor in Psychosocial Development*. Grune & Stratton, Inc.
- Parker, G.(1983). Parental 'affectionless control' as an antecedent to adult depression : a risk factor dilineated.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0(9), 138-147.

- Robert S, (2006). Parenting Narcissus : "What Are the Links Between Parenting and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74(2), April.
- Schaefer, E. S. & R. Q. & Bayley, N.(1959). "Development of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 Symonds, P. M.(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New York: Bureau of Publications,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Vasey, M. W.,& Dadds, M. R.(2001). *The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of Anxiety*. Oxford: University Press.
- Whisman, M. A., & Kwon, P. (1992). Parental representations, cognitive distortions, and mild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5), 557-568.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590-597.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 of Covert Narcissism or Overt Narcissism on Parental Overprotection and College Student's adoption

Jung, eun-ji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Parental Overprotection on college student's adjustment. It also aimed to find out whether covert narcissism or overt narcissism plays a role as a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Overprotec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This study focused on gender differences.

400 undergraduated students completed a questionnaire which was comprised with Korean Parental Overprotection scale, Covert Narcissistic Scale, Narcissistic Psesonality Inventory, Student Adop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re were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male students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excessive expectation(overprotection factor), overt narcissism and adjustment to college than female. Whereas female students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adhesive control(overprotection factor) and covert narcissism. (2) For males, parental overprotection was found to have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ir adjustment to college while female doesn't have any relationship. On the both group, covert narcissism was found to have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ir adjustment to college while overt narcissism was found to have positive relationship. parental overprotection was found to have positive relationship with covert narcissism. (3)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in the male group, parental overprotection was significantly mediated by covert narcissism in its relationship with college adjustment.

*** key word: parental overprotection, covert narcissism, overt narcissism, college adjustment**

부 록

1. 과보호 척도
2. 내현적 자기에 척도
3. 외현적 자기에 척도
4. 대학생활 적응 척도

1. 과보호 척도

	전 혀 그 렇 지 않 았 다.	별 로 그 렇 지 않 았 다.	다 소 그 랬 다.	매 우 그 랬 다.
1. 내 성적이 어머니의 기대에 못 미치면 너무 실망 하셨다.	1	2	3	4
2. 내가 이성 친구를 만나러 갈 때 따라 오셨다.	1	2	3	4
3. 어머니 마음에 안 드는 친구는 사귀지 못하게 하셨다.	1	2	3	4
4. 지나치게 나를 보호해 주셨다.	1	2	3	4
5.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제일 좋아 하셨다.	1	2	3	4
6. 내 능력 이상으로 기대하셔서 부담스러웠다.	1	2	3	4
7. 내가 남들과 다투면 무조건 그 상대방을 나무라셨다.	1	2	3	4
8. 내가 어디에 있는지 수시로 전화하길 원하셨다.	1	2	3	4
9. 내 곁에서 나를 보살피 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셨다.	1	2	3	4
10. 어머니는 언제나 내 기분을 맞춰주려고 애쓰셨다.	1	2	3	4
11. 다른 어떤 것보다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 하셨다.	1	2	3	4
12. 내가 잘못했는데도 학교에 전화해서 따지셨다.	1	2	3	4
13. 내가 무엇을 하든지 부모님의 허락을 받길 원하셨다.	1	2	3	4
14.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안하다고 못하게 하셨다.	1	2	3	4
15. 나 없이는 못 살 것 같다고 종종 말씀 하셨다.	1	2	3	4
16.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남보다 잘해야 한다고 말씀 하셨다.	1	2	3	4
17. 내 과제를 다 해주셨다.	1	2	3	4
18. 나의 귀가시간을 엄격히 관리 하셨다.	1	2	3	4
19. 내가 어머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셨다.	1	2	3	4
20. 내가 원하는 것은 무리한 것도 다 들어주셨다.	1	2	3	4
21. 우리 어머니는 나의 진로에 대해 나보다 더 민감하셨다.	1	2	3	4

22. 어머니가 내 스케줄을 다 짜시고 관리하셨다.	1	2	3	4
23.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내 생활에 너무 많이 간섭하셨다.	1	2	3	4
24. 내가 다 컸는데도 나를 애기취급 하셨다.	1	2	3	4
25. 나를 자주 껴안아 주시고 쓰다듬어 주셔서 귀찮을 때가 많았다.	1	2	3	4

2. 내현적 자기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중간이다	대체로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살는 편이다.	1	2	3	4	5
2.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잘 대해주기를 바란다.	1	2	3	4	5
3. 비판 받았을 때, 나는 쉽게 굴욕감을 느낀다.	1	2	3	4	5
4.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나에게 많은 돈을 쓰기 바란다.	1	2	3	4	5
5.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아직도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1	2	3	4	5
6. 나는 나를 내가 아닌 다른 유명한 사람인 것처럼 그려보고 싶다.	1	2	3	4	5
7. 나는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너무 애쓰는 것 같다.	1	2	3	4	5
8. 나는 가끔 남의 비평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1	2	3	4	5
9. 나는 다른 사람들이 부탁을 해 올 때에 때때로 짜증이 난다.	1	2	3	4	5
10. 가족들 중에는 내가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1	2	3	4	5
11. 나에게 즐거운 일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 해도 포기하지 않는다.	1	2	3	4	5

12. 나는 다른 사람이 자기문제로 와서 내 시간을 요구하거나 공감해주기를 요구할 때 말은 못해도 괴롭고 귀찮다.	1	2	3	4	5
13. 나는 내가 잘 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	1	2	3	4	5
14. 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낀다.	1	2	3	4	5
15. 나에게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하게 보인다.	1	2	3	4	5
16. 속기보다 차라리 남을 속이는 것이 좋다.	1	2	3	4	5
17. 나는 내게 부족한 것(예를 들면, 외모나 돈 혹은 능력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진투가 난다.	1	2	3	4	5
18. 때때로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내 자신을 주장하지 못 할 때가 있다.	1	2	3	4	5
19.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때, 내 인생은 남들보다 불행한 일이 더 많은 것 같다.	1	2	3	4	5
20. 내 삶의 목표는 비교적 명확하다.	1	2	3	4	5
21. 나는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다.	1	2	3	4	5
22.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아 자존심이 상했던 경우가 있다.	1	2	3	4	5
23. 나는 내가 하는 일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있다.	1	2	3	4	5
24. 나는 여러 가지 일에 모두 뛰어나기를 바란다.	1	2	3	4	5
25. 사람들이 나의 결점을 알아차릴까봐 자주 두렵다.	1	2	3	4	5
26.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다.	1	2	3	4	5
27. 필요하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할 것이다.	1	2	3	4	5
28. 나는 어떤 모임에 참석하든 항상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구석진 자리에 앉는 편이다.	1	2	3	4	5
29. 나는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게 될지 전혀 모르겠다.	1	2	3	4	5
30. 직업을 통해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31. 나는 창피스러운 일을 당하면 두고두고 생각하며 괴로워 하는 편이다.	1	2	3	4	5

32.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 활기가 적은 편이다.	1	2	3	4	5
33. 나는 사람들이 왜 나의 장점을 좀 더 알아주지 않는지 의아하게 생각한다.	1	2	3	4	5
34. 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나 친하지 않은 사람 앞에서 별로 긴장하지 않는다.	1	2	3	4	5
35. 나는 나에게 득이 될 때만 '공평의 원칙'을 지킨다.	1	2	3	4	5
36.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조차도 종종 내우 외롭고 불편하다.	1	2	3	4	5
37.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만족을 느낀다.	1	2	3	4	5
38.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고 높이 평가해 주었으면 좋겠다.	1	2	3	4	5
39. 나는 혼자서는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것 같다.	1	2	3	4	5
40. 요 며칠 동안 나는 계속 슬프고 우울했는데, 이런 기분이 쉽게 나아질 것 같지 않다.	1	2	3	4	5
41. 누군가가 보고있는 자리에서 일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1	2	3	4	5
42. 나는 일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	1	2	3	4	5
43. 항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고 싶다.	1	2	3	4	5
44. 나의 문제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정말 모른다는 것이다.	1	2	3	4	5
45. 기회만 된다면, 나는 죄책감 없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것이다.	1	2	3	4	5

3. 외현적 자기에 척도

1	㉠	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
	㉡	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2	㉠	겸손은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
	㉡	나는 기본적으로 겸손한 사람이다.
3	㉠	나는 거의 모든 일을 과감하게 하는 편이다.
	㉡	나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람이다.

4	㉠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나는 때때로 당황하게 된다.
	㉡	다른 사람들이 내가 꽤찮은 사람이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5	㉠	내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생각만해도 너무 겁나는 일이다.
	㉡	내가 세상을 다스린다면 세상은 훨씬 더 살기좋은 곳이 될 것이다.
6	㉠	나는 무슨 일이든지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다.
	㉡	나는 내가 한 행동의 결과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7	㉠	나는 여러사람 속에 섞여있는 것이 더 좋다.
	㉡	나는 여러사람에게서 주목받는 것을 좋아한다.
8	㉠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	나는 성공하는 것에 대해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다.
9	㉠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잘나지도 못나지도 않다.
	㉡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0	㉠	나는 내가 좋은 리더가 될 지 자신이 없다.
	㉡	나 자신이 좋은 리더라고 생각한다.
11	㉠	나는 자기주장을 잘한다.
	㉡	나는 내가 좀 더 자기주장을 잘 했으면 좋겠다.
12	㉠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를 갖는 것을 좋아한다.
	㉡	나는 별로 개의치 않고 다른 사람의 지시를 따른다.
13	㉠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종한다는 것이 나에게서 쉬운 일이다.
	㉡	나는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그것이 싫다.
14	㉠	내가 받아 마땅한 대접을 나는 해주기를 바란다.
	㉡	나는 대개 내가 받을만한 대접을 받는다.
15	㉠	나는 내 몸매(또는 체격)를 과시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	나는 내 몸매(또는 체격)를 과시하기를 좋아한다.
16	㉠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훤히 읽을 수 있다.
	㉡	사람들은 때때로 이해하기 어렵다.
17	㉠	내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꺼이 의사결정의 책임을 진다.
	㉡	나는 내 착임하게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을 좋아한다.
18	㉠	나는 그저 적당히 행복하기를 원한다.
	㉡	나는 세상사람들의 눈으로 봤을때 뭔가 업적을 이룬 사람이 되고 싶다.
19	㉠	내 신체는 별볼일 없다.

	㉑	나는 내 몸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한다.
20	㉒	나는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㉓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를 돋보이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21	㉒	나는 항상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㉓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 할 때가 있다.
22	㉒	나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한다.
	㉓	나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의존하는 일이 거의 없다.
23	㉒	나도 때때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다.
	㉓	누구나 내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
24	㉒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다.
	㉓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 하는 것을 좋아한다.
25	㉒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얻을 때까지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㉓	나는 그럴만한 일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 만족한다.
26	㉒	칭찬을 들으면 좀 민망하다.
	㉓	나는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다.
27	㉒	나는 권력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㉓	나는 권력 그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다.
28	㉒	나는 새로운 유행과 스타일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
	㉓	나는 새로운 유행과 스타일을 주도하기를 좋아한다.
29	㉒	나는 거울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㉓	나는 거울을 들여다 보는 데 별 관심이 없다.
30	㉒	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되는 것을 좋아한다.
	㉓	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되는 것이 불편하다.
31	㉒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 수 있다.
	㉓	항상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2	㉒	권위를 갖는 것이 나에게서 별 의미가 없다.
	㉓	사람들은 항상 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 같다.
33	㉒	나는 리더가 되는 것을 좋아한다.
	㉓	내가 리더이든 아니든 나에게서 별 상관이 없다.
34	㉒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	나는 내가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35	ⓐ	사람들은 때때로 내가 하는 말을 믿는다.
	ⓑ	나는 누구에게나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믿게 할 수 있다.
36	ⓐ	나는 타고난 리더이다.
	ⓑ	리더쉽은 오랜 기간에 걸쳐 개발되는 것이다.
37	ⓐ	나는 훗날 누군가가 내 자서전을 써 주었으면 한다.
	ⓑ	나는 어떤 이유로든 사람들이 내 삶을 들추어 내는 것이 싫다.
38	ⓐ	나는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내 모습에 주목해 주지 않으면 속이 상한다.
	ⓑ	나는 밖에 나갔을 때 군중속에 묻혀 눈에 띄지 않아도 상관 없다.
39	ⓐ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유능하다.
	ⓑ	다른 사람에게도 아주 많은것을 배울 수 있다.
40	ⓐ	나는 다른 어느 사람과 비슷하다.
	ⓑ	나는 비범한 사람이다.

4. 대학생활 적응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8	9
1. 나는 대학내의 생활에 잘 맞는 것 같다.	1	2	3	4	5	6	7	8	9
2. 근래에 나는 긴장되거나 신경이 예민해져 있다.	1	2	3	4	5	6	7	8	9
3. 나는 지금까지 학업을 잘 해나가고 있다.	1	2	3	4	5	6	7	8	9
4. 나는 대학에서 원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있다.	1	2	3	4	5	6	7	8	9
5. 나는 내가 대학에 다니는 이유와 대학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알고 있다.	1	2	3	4	5	6	7	8	9
6. 나는 대학공부가 어렵게 느껴진다.	1	2	3	4	5	6	7	8	9
7. 나는 최근에 기분이 매우 우울하다.	1	2	3	4	5	6	7	8	9
8. 나는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9. 나는 시험기간 중에는 잘 지내지 못한다.	1	2	3	4	5	6	7	8	9
10. 나는 근래에 피곤할 때가 많다.	1	2	3	4	5	6	7	8	9
11. 홀로서는 것, 내 자신에 대해 책임진다는 것이 쉽	1	2	3	4	5	6	7	8	9

지 않다.									
12. 나는 지금 학업성적 수준에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13. 나는 교수님과 공적인 만남 이외에 사적으로 만나는 일이 있다.	1	2	3	4	5	6	7	8	9
14. 나는 대학에 다니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만족한다.	1	2	3	4	5	6	7	8	9
15. 나는 특히 이 학교에 다니기로 결정 한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	1	2	3	4	5	6	7	8	9
16. 나는 학과 공부를 제대로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17. 나는 학교에서 친밀한 사회적 유대 관계를 많이 맺고 있다.	1	2	3	4	5	6	7	8	9
18. 나의 학업적 목적과 목표는 뚜렷하게 정해져 있다.	1	2	3	4	5	6	7	8	9
19. 나는 최근 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없다.	1	2	3	4	5	6	7	8	9
20. 사실 나는 해야 되는 공부를 충분히 해낼만큼 똑똑하지 못하다.	1	2	3	4	5	6	7	8	9
21. 학사학위를 따는 것은 내게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6	7	8	9
22. 나는 공부시간을 별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23. 나는 수업의 일부인 레포트(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1	2	3	4	5	6	7	8	9
24. 나는 머리가 아플 때가 많다.	1	2	3	4	5	6	7	8	9
25. 최근에 나는 공부하려는 의욕이 많이 생기지 않는다.	1	2	3	4	5	6	7	8	9
26. 나는 대학에서 하고 있는 수업이외의 활동들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27. 나는 근래에 대학교육의 가치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6	7	8	9
28. 나는 다른 대학에 갔더라면 하고 바란다.	1	2	3	4	5	6	7	8	9
29. 나는 최근에 체중이 많이 줄었다(또는 늘었다).	1	2	3	4	5	6	7	8	9
30. 나는 대학에서 듣고 있는 강의 수와 종류에 만족한다.	1	2	3	4	5	6	7	8	9
31. 나는 대학에서 잘 어울려 지낼 만큼 대인관계 기술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 같다.	1	2	3	4	5	6	7	8	9
32. 나는 최근 너무 쉽게 화가 나곤 한다.	1	2	3	4	5	6	7	8	9

33. 나는 최근에 공부하려고 할 때, 주의집중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	2	3	4	5	6	7	8	9
34. 나는 잠을 잘 자지 못한다.	1	2	3	4	5	6	7	8	9
35. 나는 노력에 비해서 성적이 잘 나오지 못한다.	1	2	3	4	5	6	7	8	9
36. 나는 대학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하지 못하다.	1	2	3	4	5	6	7	8	9
37. 나는 대학에서 듣고 있는 강의의 질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6	7	8	9
38. 나는 강의에 빠짐없이 만족한다.	1	2	3	4	5	6	7	8	9
39. 나는 때때로 생각이 쉽게 뒤죽박죽이 되어 버린다.	1	2	3	4	5	6	7	8	9
40. 내가 대학 내에서의 친목활동(동문회, 동아리)에 참여하는 정도에 만족한다.	1	2	3	4	5	6	7	8	9
41. 나는 학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학교를 계속 다닐 것이다.	1	2	3	4	5	6	7	8	9
42. 나는 이성과 잘 어울려 지내고 있지 못하다.	1	2	3	4	5	6	7	8	9
43. 나는 대학에서 드는 비용에 대해 걱정이 된다.	1	2	3	4	5	6	7	8	9
44. 나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	1	2	3	4	5	6	7	8	9
45. 나는 최근에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	1	2	3	4	5	6	7	8	9
46. 나는 공부를 시작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6	7	8	9
47. 나는 대학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8	9
48. 나는 이번학기 수강하는 과목들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6	7	8	9
49. 요즘 나는 건강상태가 좋은 것 같다.	1	2	3	4	5	6	7	8	9
50. 이모저모를 살펴보면 대학에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집에 있는 것이 낫겠다.	1	2	3	4	5	6	7	8	9
51. 내가 흥미를 느끼는 것들의 대부분은 대학에서 학과 공부와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	1	2	3	4	5	6	7	8	9
52. 최근 나는 다른 대학으로 옮길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53. 최근에 나는 대학을 아주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54. 나는 휴학을 했다가 후에 공부를 마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55. 나는 지금 듣고 있는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에 대	1	2	3	4	5	6	7	8	9

해 만족하고 있다.									
56. 나는 어떤 문제이든지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좋은 친구나 아는 사람이 대학에 몇 명 있다.	1	2	3	4	5	6	7	8	9
57. 나는 대학에서 부딪히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	2	3	4	5	6	7	8	9
58. 나는 대학에서의 인간관계에 꽤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59. 나는 대학에서의 내 학업상태에 대해 꽤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60. 나는 앞으로 대학생활에서 닥칠 도전에 잘 대처해 나갈 자신이 있다.	1	2	3	4	5	6	7	8	9